[UCI]I804:24011-200000233105

2006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임진록>의 인물 연구

-민중영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지 영

<임진록>의 인물 연구

-민중영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 of <Im Jin Rok>

: The focus on a hero of the people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지 영

<임진록>의 인물 연구

-민중영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지 영

김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1*

1. 연구방법 및 방향.....1
2. 연구사 검토.....3

Ⅱ. <임진록>의 이본과 작품의 배경.....*11*

1. 선정 이본의 구성과 서술상의 특징.....11
2. 삼국(조 · 명 · 일)의 정세와 조선의 사회상.....16

Ⅲ. 민중영웅의 등장과 인물의 형상화.....*20*

1. 무능한 군주 비판의 수단 최일경.....20
2. 민중에 의해 완성된 영웅 김덕령.....24
3. 민족의 성웅 이순신.....32
4. 역사의 판결 김응서 · 강홍립.....38
5. 전란의 종결자 사명당.....45

6. 변화하는 여성상 논개·월선·화월.....50

Ⅳ. 대외인식과 민중의식의 성장.....58

1. 왜와 명에 대한 인식.....58
2. 민중주체로서의 사회의식.....63

Ⅴ. 결론.....70

《참고문헌》.....72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Im Jin Rok>

- The focus on a hero of the people -

Ji-young Kim.

Advisor : Prof. Su-jung Kim,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mJinRok> what describe entire thing about the war of ImJin war(1592~1597) and the book was not just recorded the historic story it show variable literature's form. This book has roughly 120 different versions. Added to that, most of them have changed the epic feelings and the characters' figuration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essential to study how the heroes in those books had been changed as being connected with history and seek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false characters. So, in this manuscrip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heroes in <ImJinRok> as the central figures referred to these three book; the most historical <kyoung pan bon>, the most romantic <national library book written to Korean>, the most fictitious <kwon young-chul bon>.

Choi il-kyoung who was not a real person, used to criticize the disability ruler.

Kim duck-ryung was tragically died of during the war. So, he became a represent hero by people in the book.

Regardless of difference in social position, Lee soon shin, brilliant general, was able to display his ability to lead a victory over Imjinwhearan. He truly became a hero of the nation with his talent combined with his outstanding personality.

Kim eung-seo and Kang hong rip was contrast and judge two of them even thought their are fiction, it means that growth of people's senses

Sa myoung-dang made comfort for the disturbances of war and defeatism through the Japan expedition story that made biggest impact.

After they passed the war, present the alternative social consciousness about women though the Non-gae, Wall-sun and Gea wall hyang.

Next on it, the thesis arrange for people who passed the war. Their emotion was changed about inner and outer country and growth compare with the past study.

The disturbance of war that changes of disbelief consciousness about ruling, so fulfilling to public hero, exteriorly a hostile feeling for japans and china through <ImJinRok> make a sure of expressed.

Some part of the book, age ethics do not depart perfectly in terms of is fictionalized, people's emotion to through each hero, as well as in terms of is not detected on the surface generally novel, and limitation is seen in terms of public consciousness growth. At that, <ImJinRok> is historic war novel that written basis on the war of ImJin war what real historical accident. It has enough value for inquire about unique organization, portrait of character and changing form.

Ⅰ. 서론

1. 연구방법 및 방향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군담소설이다. 임진왜란은 온 민족이 힘을 결집하여 왜적과 싸운 조선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7년 동안의 전란은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과도한 국력 소모로 인해 백성들의 생계의 연속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왜적은 이 땅에서 물러서고 말았지만 임진왜란을 통하여 받은 우리 민족의 상처는 참으로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긴 전란의 울분과 고통에 따른 왜국에 대한 민족의 울분과 분노라는 정신적 상처가 무엇보다도 컸다.

<임진록>은 전란이 끝나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민중들 사이에서 그 분노와 적개심과 회한이 뒤얽혀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소설이다. 이 소설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종래 야사, 실기류, 설화류 등에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허구적 소설의 형식으로 수용한 역사군담소설로 분류되어진다.

대개의 고소설이 주인공 중심의 전기적인 형식을 갖추고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임진록>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사건을 꾸며 나간다. 즉, 민중이 자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려는 열망은 민족의식의 고양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란 국난을 소재로 역사를 돌이켜 보는 시대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이런 이유로 민중적 영웅상의 의미를 지닌 인물들의 대거 등장과 그 영웅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소설사에서 독특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

“문학이란 그 표현수단인 언어의 형상적 창조를 통하여 역사의 진전에 공헌하는 예술의 하나이다” 라는 말[1]과 같이 우리는 문학작품 속에서 그 시대

1) 정병욱,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p.21.

의 사회상 내지는 생활상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시대의 사상적인 배경, 또 그 시대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다. <임진록>에서 민중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변조된 승리의 역사를 만들며, 그 역사가 문학에 의해서 이해되기를 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과 여러 설화가 유입되어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진록>은 어느 한 개인만의 소설이 아니라 민중이 공동으로 작가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다. 전란을 체험하면서 지배계층과 관군의 비열상을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중적 · 민족적 영웅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마음이 <임진록>의 많은 영웅들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임진록>에서는 신분보다는 능력이, 상층민보다는 하층민이, 유교사상보다는 민간신앙이 더 강조되므로 전승담당층은 피지배계층에 속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담당층인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 공격하지는 않는다. 전승담당층은 자기대로의 인식에 따라 상층민을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했다는 편이 가장 적절한 지적일 것이다.[2)]

지금까지 <임진록>의 연구는 이본 정리와 민중의식에 관한 연구, 등장인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연구는 등장인물들을 주동과 반동으로 정형화시켜 놓아, 이본의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이본에서 변이되어 나타난 영웅들의 성격과 작품 속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술자가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창조해 내는 것이나 당시 실존 인물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시켜 성격과 행위에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 역사적 사실과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소설에 등장한 영웅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며 <임진록>에 등장하는 민중영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임진록>의 이본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선행 연구의 토대 아래 설화의 모티프와 표기수단을 중심으로 계열을 나눈 소재영의 이본 분류에 따

2) 신태수, 「임진록 작품군의 등장인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p.157.

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본을 선정하여, 조선의 중심적 영웅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취택하도록 하겠다. Ⅱ장에서 선정이본의 구성 및 서술상 특징과 임진왜란 당시 삼국(조 · 명 · 일)의 정세와 조선의 사회상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Ⅱ장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각된 민중영웅들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이들의 사실적인 면에 비추어 소설로 허구화된 면을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임진록>의 민중 영웅들의 작품 내 역할과 그 의미를 도출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Ⅳ장에서는 민중영웅에 통해 드러난 민중들의 역사의식 및 전란을 겪으며 변모했을 사회의식의 성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연구사 검토

<임진록>은 1592년부터 7년간 치러졌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조선조 유일의 역사군담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59종 이상[3]의 이본군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이본군의 발생은 임진왜란이 우리 민족에게 준 충격과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록>에 대한 연구는 1939년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논한 이래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초기 연구는 여러 이본에 대한 이해 없이 문학사적 또는 소설사적인 관심에 머물러 작품의 해설 정도의 영역을 넘지 못했고, 따라서 오류도 많았다. 김태준은 <임진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임진록은 순전한 한글로서 기존한 역사에 다소 영웅적 과장을 가해서 공상 윤식한 작품이다. 은봉야사별록과 기타 한문본 임진록과 판이하여 본국의 단점은 쓰지 아니하고, 자국의 듣기 좋은 부분만 과장하여 쓴 것으로, 조선 유일한 군담이라고

3) <임진록>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임철호가 실제로 검토 · 분석한 이본은 총 59종이고(『임진록의 이본연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견된 총 이본 수는 126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그러나, 본고에서는 임철호의 분류에 의해 <임진록>군에 속하는 이본의 종에 한하도록 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4]

김태준의 이러한 지적은 어느 이본에 대한 논평인지가 확실치 않고, <임진록>의 이본군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평가이다. 김태준을 이어 이명선, 신기형, 김기동, 박성의, 주왕산 등 초기연구자들은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대별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5]

이명선은 최초로 <임진록> 단행본을 발간하고, 해설에서 한글본과 한문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임진록>에는 사대주의 사상이 들어 있다. 자력으로써 왜적을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명으로부터 구원병의 힘을 빌어 왜적을 무찌르려는 외방의존의 노예근성이다. 한글 본에도 한문본에도 사대사상이 들어있으나, 한문본에 그러한 경향이 훨씬 강하다.[6]

이명선은 한문본에 사대주의 사상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보는 이유로서, 한글본에서는 조선의 장수들이 독자적으로 싸우고 있으나 한문본에서는 구원병인 명의 지휘 하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글본과 한문본의 이와 같은 차이는 한문본을 애독한 양반관료들이 한글본을 애독하던 일반민중보다 사대주의 사상이 농후했었기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1966년 발표된 김순휴의 『임진록고』[7]는 이본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성격규명을 시도하였다. 김순휴는 총 7종의 이본을 소개하고, 이본의 변별성

---

4) 김태준, 「임란 후에 배태된 신문예」, 『조전소설사』, 청진서관, 1933, p.48.
5) 이명선, 『임진록』, 국제문화관, 1948.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pp.237~238.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정연사, 1969, p.244.
박성의, 『한국 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pp.209~210.
주왕산, 『한국 고대소설사』, 정음사 , 1950, p.124.
6) 이명선, 앞의 책, p.152.
7) 김순휴, 「임진록고」, 『동악어문론집』권, 1966, p.122.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이본의 내용상의 차이나 각 이본간의 관련성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1980년 소재영[8]은 그 당시까지 <임진록>을 하나의 역사소설로 다룬 본격적 논문은 없다고 평가한 후,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을 역사소설 장르로 독립시킨 김기동[9]의 연구와 <임진록>을 설화적인 측면에서 다룬 장덕순[10]의 관심을 한발 앞선 연구로 평가하였다.

임철호[11]는 임진록을 역사기록물이 아니라 소설로서 보는 한 임진록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허구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논의 이전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임진록에는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계열이 있기 때문에 각 계열들의 형성문제가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않고, 일부 이본들을 대본으로 하여 임진록의 형성문제를 고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기존의 성과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견해 아래 <임진록>의 이본을 몇 개의 계열로 정리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는 소재영과 임철호이다.

임철호는 약 40여종의 이본들을 서두의 이야기와 구성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최일영계열, 관운장계열, 최일영계열(변), 이순신계열, 역사계열, 역사계열(변), 기타계열의 7개의 계열로 나누었다. 그 후 1996년 총 19개의 이본을 더 찾아내 총 59종의 이본을 토대로 네 권으로 이루어진『임진록 이본연구』를 저술하였다. 여기에서 임철호는 <임진록> 이본의 개념과 범위[12]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한 작품을 분석하여 먼저 전체내용을 이야기

---

8) 소재영,『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p.7.
9) 김기동,『이조시대 소설론』, 선명문화사, 1977.
10) 장덕순,『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11) 임철호,『임진록 연구』, 정음사, 1989, p.39.
12) _____,『임진록 이본연구1』,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6, pp.8~9.
<임진록>이 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의 역사가 어떠한 형태이든 작품의 배경과 소재가 되어 있어야하고, 역사적 사실의 일부 혹은 전체가 허구화되어 있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임진록의 다른 이본과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 이때, 임진왜란에 관한 문헌기록과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한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단편적인 사건 이야기 등은 임진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별로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은 이야기 단락의 내용과 순서가 서로 닮은 이본끼리 묶어 계열별로 분류하였다. 계열별로 분류한 이본 중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인정될 만한 이본을 선정하여 각 계열의 기준 이본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계열별 이본의 내용을 비교하여 이본간의 변이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이에 해당되는 이본을 계열별로 제시하였다.

이야기 단락을 중심으로 임진록의 이본들을 분류하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역사(H)계열, 최일영(C)계열, 관운장(G)계열 등 세 계열로 나누어진다. 이들 계열은 전승 과정에 상호간의 영향과 독자적인 변이를 거치면서 이순신(L)계열, 역사(HL)계열(변), 혼합(M)계열을 형성시켰다.[13)]

1. 역사계열 : 국립도서관 한문필사본
2. 최일영계열 : 박순호 한글필사본(CA박본), 박순호 한글필사본(CA순본), 정명기 한글필사본(CA정본), 소재영 한글필사본(CA소본), 사재동 한글필사본(CA사본), 임철호 한글프린트본(CB임본), 김기현 한글필사본(CB현), 정신문화원 한글필사본(CB정본), 고대도서관 한글필사본(CB고본), 서울대도서관 한글필사본(CC서본), 정신문화원 한글필사본(CC정본), 국립도서관 한글필사본(CD국본),『흑룡록』이란 제목의 한글필사본(CB흑본) 등.
3. 관운장계열 : 원광대 도서관 한문필사본(G원본), 고려대 도서관 한문필사본(G고본), 이명선 한문필사본(G이본), 권영철 한글필사본(G권본), 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필사본(G정본), 김기현 한글필사본(G기본), 박순호 한문필사본(G박본), 정명기 한문필사본(G명본), 전주대 한글필사본(G전본), 정명기 한글필사본(G국본), 김기현 한글필사본(G현본)
5. 역사계열(변) : 경판본(HL경본), 정신문화연구원 한문필사본(HL정본), 숭전대도서관 한글필사본(HL숭본),『조선고전문학전집』113-121면 주역(HL선본)
7. 기타계열 : 연세대 도서관 한글필사본『흑룡일긔』(M흑본), 박순호 한글필사

13) 위의 책, p.11.

본(M순본), 김광순 한글필사본(M김본), 박순호 한글필사본(M박본), 경북대 도서관 한글필사본(M경본), 조동일 한글필사본(M조본)[14]

소재영은 1972년에 발표한 「임진록 연구」[15], 「한문본논고」[16]에서 우선 이본 연구의 대상을 9편으로 확대한 다음, 모티프별로 분석하였다. 소재영은 이상과 같은 토대 위에서 1980년, 23종의 이본을 발굴하고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여러 이본에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23종의 설화의 모티프와 표기의 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다섯 계열로 분류, 정리하였다.

1.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군 : 국립도서관 한문본, 숭전대본, 경판본
2. 역사성을 바탕으로 의도적 설화를 가미한 작품군 : 흑룡일기, 연세대학본, 鄙藏A본, 鄙藏 B본
3.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문본계열의 작품군 : 이명선의 한문본, 고대한문본, 권영철본, 경북대본
4.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글본 계열의 작품군 : 국립도서관 한글본, 흑룡록, 이능우B본, 김양선본, 박노춘본 등
5. 설화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작자 임의로 발췌, 편집한 작품군 : 이능우A, C본, 鄙藏 C본(선임록), 김완섭본 등[17]

소재영의 이상과 같은 분류는 <임진록>의 이본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임진록>의 이본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본연구의 기반 위에서 <임진록> 연구를 본격적으로 제시하여 시작한 연구자는 소재영과 임철호이며, 현재 그 외의 연구는 두 연구자의 연구 성과의 기반위에서 민중문학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

14) 위의 책, pp.11~12, 참조.
15) 소재영, 「임진록연구」, 『숭전어문론집』 1집, 1972.
16) _____, 「한문본논고」, 『단대국문학논집』 5 · 6집, 1972.
17) _____,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pp.75~78.

소재영은 <임진록>에 대해 민중의 문학이며, 어디까지나 민중의 자성과 분노를 상징화한 설화의 집성체라는 데서 그 가치성이 높이 인정된다고 평가하였다.[18] 또한 소재영은 「임진록 연구」에서 9편의 이본을 모티프별로 분석하여 정신적 배경을 점검해 보았고, 거기에서 그는 <임진록>이 정신적 승리의 문학이며, 내적인 반성과 외적인 반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는 민족정신의 산 거울이라고 보았다.[19] 임철호는 소재영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그 방법을 더욱 진전시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개별 이야기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임진록>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분석보다는 개별 이야기들의 모든 성격을 먼저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20]는 생각에서 설화 형성론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임진록>에 수용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허구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임진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과 소재로 하고 있는 역사소설이면서도 설화적으로 변이된 것임을 밝히려 하였다.

권혁래[21]는 「임진록의 서술시각과 인물형상」 연구에서 소재영, 임철호의 이본연구의 특징으로서 소재영이 이본들의 형성과정의 특징과 내용분석의 결과로써 계통을 유별하였다면, 임철호는 구성상의 특징으로 이본을 일단 계열화한 다음, 각 계열들의 형성, 계열별 상이점과 임란 설화, 작자의식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연구자의 이본 연구태도는 기본적으로 상이하다고 평하고, 인물형상의 변이 양상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려는 경우, 구성에 따른 분류보다는 형성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소재영의 분류 결과를 우선적으로 채택한다고 방향을 정하고 있다.

<임진록>에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자의식을 연구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

---

18) 위의 책, p.121.
19) _____, 「임진록 연구」, 『숭전어문론집』 1집, 1972.
20) 임철호, 『임진록 연구』, 정음사, 1989, p.408.
21) 권혁래, 「임진록의 서술시각과 인물형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p.9.

로는 위의 조동일, 박경자[22], 김민주[23], 이재창[24]등이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초점을 둔 민중영웅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조동일, 박경자, 김민주의 연구이다. 박경자는 <임진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역사적 인물과 가공적인 인물로 나누고, 다시 선과 악의 개념으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나누어 인물들의 특징과 민중의 사회의식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이본을 <국립도서관 한글본>에 한정하고 있어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았다.[25] 김민주 역시 여러 이본을 참조한 것이 아니라 <경판본>을 중심으로 영웅들의 인물설정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한정된 연구로 머물고 말았다. 조동일[26]은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임진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는 김덕령 이야기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과 이본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논의된 것으로 역시 인물연구에 있어 한계를 지니며, <임진록>의 형성문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임진록> 속에 부각되어 있는 영웅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산화하는 김덕령을 통해 민중적 영웅이 민족적 영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역사창조의 의지를 보는 한편, 내적(집권층)으로 인해 희생되는 김덕령을 통해 폐쇄된 왕조의 권력구조 때문에 역사창조의 의지가 좌절되고 희생되는 양면성을 지적한 이러한 분석적 방법은 한 인물에 대해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 같은 분석적 연구 방법은<임진록>에 등장하는 다른 영웅들의 성격에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최삼용[27]은 조선중기 이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담소설을 살

---

22) 박경자, 「임진록에 나타난 작중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23) 김민주, 「임진록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인물양상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24) 이재창, 「임진록에 나타난 민중의식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25) 김형준, 「임진록의 인물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p.3.
26) 조동일,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성산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27) 최삼용, 「임진록의 영웅상에 대한 고찰-이인영웅으로의 변형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07호, 1992.

피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임진록>에 나타난 영웅들의 변모양상을 검토해 봄으로써 인물들의 도교사상적인 측면을 추적하여 이러한 인물들이 소설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출해내는 연구를 시도했다.

신태수는 <임진록> 중 최일경이 나타나는 이본을 자료로 삼아 역사소설 연구에서 역사적 인물만을 중시하고 역사적 인물에 미치는 허구적 인물의 영향에 주목하여 역사적 인물 이상으로 허구적 인물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 보았다.[28] 또,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품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전대 서사물에 비해 <임진록>은 하층인을 대거 등장시키고 그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과 상층인 뿐만 아니라 다층적 인물의 형상화, 시공간의 확대, 능력 중시의 상황전개를 통해 현실주의를 극대화하여, 민중영웅소설의 판도를 결정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29]

최문정은 <임진록> 각 계열의 이본 내용을 작은 이야기 단락으로 나누어 개별번호를 붙인 임철호의 문헌자료를 텍스트로 하고, 소재영의 분류를 참조하여 허구적 이야기의 서술의도를 살펴 작품의 구조를 분석, 제시하여 종래 민중문학으로 평가되어온 역사 군담소설 <임진록>에 당대의 지배이념이 깊숙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논증해 보였다.[30]

---

28) 신태수, 「임진록에 나타난 허구적 인물의 성격과 기능」, 『한민족어문학회』, 1987.
29) _____, 「임진록의 현실주의적 성격」, 『동의어문론집』 제7장, 1994.
30) 최문정, 『임진록 연구』, 박이정, 2001, pp.35~36, 참조.

Ⅱ. <임진록>의 이본과 작품의 배경

1. 선정 이본의 구성과 서술상의 특징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긴 장편으로 엮어 보여주는 대신에 부분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활동을 순서에 따라 개별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보여준다. <임진록>의 복잡한 사건의 순차적인 제시와 다양한 인물의 출몰과 성격, 이 점은 초기 한문 단편소설이나 조선 후기 허구적 영웅 소설과 구별되는 임진록의 특성이다.

소재영은 이러한 <임진록> 구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대로 20여종의 이본들을 대상으로 다섯 계열로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모티프의 나열을 통하여 완형의 <임진록>을 복원해 낼 수 있다.

(왜국의 유래 · 평수길의 탄생) / (이율곡 · 조헌의 왜침예언 · 정배당함) / (난전 왜장들의 조선정탐) / (유운룡 · 최치백의 정탐장 추방) / (황윤길 · 김성일의 왜국 방문) / (최위공 현몽 · 최일영의 탄생) / 국왕의 몽사와 해몽자의 유배 / 정발 · 송상현의 전사 / 국왕(선조)의 몽진(피란) / 원병장의 입명(원병에 실패) / (이여송의 화상구득설화) / 천자의 관우 현몽과 이여송의 내원 / 김응서가 기녀 통해 왜장 살해 / 제의병장들의 활약과 항쟁 / 정문부의 백두산 기병 / 국경인의 반역(왕자 잡아 바침)과 처형 / 홍의장군 곽재우의 활약상 / 이순신의 영웅성 · 원균과의 불화 / 이여송의 회군 트집과 접반기지 / (생낙지와 계충의 응수) / 논개의 죽음과 진주성 일화 / 청정 · 소섭 매씨의 편지 / (삼척 · 청송 등지의 면화) / 김덕령의 청정진 출입과 원사 / 김수업의 군량미 공급 / 권율의 싸움과 행주대첩 일화 / 관운장의 독전과 음조 설화 / 기민의 참상과 선·정릉 파굴, 이총설화 / 이순신의 죽음 · 평수길의 죽음 / 강홍립 · 김응서의 왜국정벌 / 사명당의 항왜설화와 왜왕의 굴복 / 이여송의 횡포와 추방 설화 / (왜왕의 사명당 재초청) / (왜국 · 명나라 후예들의 조선 재침) / (난 후 또는 난전의 여러 이변들) / (병자호란의 예언)

* 괄호안은 특정작품임[3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대표적 화소로는 사명당의 항왜설화, 이여송의 원병 및 추방설화, 강홍립 · 김응서의 왜국정벌설화, 관운장의 음조 · 독전설화, 최일경의 해몽 · 유배설화, 김응서의 왜장살해설화, 김덕령의 신술과 원사설화, 국왕의 의주몽진설화, 이순신의 해전 및 최후설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작품에 따라 논개 · 국경인 · 김수업 ·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설화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이 <임진록>의 각 영웅들의 역사적 상관성과 작품에서 형상화된 성격과 그 기능을 개별적 인물 연구를 통해 도출해내는 것이므로 영웅 형상의 변이과정을 볼 수 있는 이본군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표적 설화를 갖춘 이본들 중에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작품 중 <경판본>[32]을, 설화를 바탕으로 허구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첨가되고, 구성 또한 가장 소설에 가까운 <국립도서관본 한글본>[33]과 더불어, 이여송 화상 구득설화, 왜군 복수군의 조선 재침, 이여송의 추방 등 일본과 명나라에 대한 적대감과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허구성이 가장 강한 <권영철본>[34]을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삼도록 하겠다. 그리고 총 59종의 이본들 가운데 같은 내용을 지닌 이본이 한 종도 없을 정도로 이본간의 변이가 심한 <임진록>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학계에서 대표적 연구자료로 삼는 이본들도 참고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경판본>은 권 1, 2, 3 및 상, 중, 하로 방각되어 2종이 출판되었으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권 1은 26장, 권 3은 23장 매면 14행, 매행 24~27자로 판각되어 있다. 권 2는 조윤제 소장으로 23장으로 되어 있다. <경판본>의 특징은 비교적 역사적 기술에 충실하다는 점이며, 등장인물도 사실에 기반을

31) 소재영 · 장경남, <임진록>, 『한국고전문학전집』 4권, 1993, pp.9~10.
32) <경판본>은 소재영의 분류상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 군에 속하는 이본이고, 임철호 분류에서는 역사계열의 변형1에 속한다.
33) 이하 <국립도서관본>으로 지칭. 이 이본은 소재영의 분류상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글본 작품 군에 속하고, 임철호 분류에서는 최일영계열에 속한다.
34) <권영철본>은 소재영의 분류상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문본 군에 속하고, 임철호의 분류에서는 관운장계열에 속한다.

둔만큼 방대하며 장편소설화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권 하의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상, 중과의 연결성이 끊어진 삽화의 편집형식으로 허구적 설화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35]

<경판본>에서는 왜국의 유래, 평수길의 생장, 조헌의 왜침예언, 왜장들의 정탐 등 작품 서두에서 보는 임진 이전의 설화적 구성과 왜란이 보복으로 강홍립 · 김응서가 일본 정벌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사명당이 생불의 위력을 과시하여 왜왕을 항복받고 환국하는 끝맺음이 소설로서의 이 작품의 주축을 이룬다. 그 밖에 이토정과 평의지의 약속, 관운장의 도움, 선조의 꿈, 선조의 통곡, 생낙지와 제충의 응수, 김덕령의 도술 등이 설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경인의 고발, 조승훈의 교만, 논개의 죽음, 김응서의 영웅화, 강홍립의 성토, 등을 통하여 민족적 내지 민중적 분노와 의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권률과 곽재우의 전훈과 대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며, 심유경과 평행장의 강화서신이 교환된 대목 등은 타 본에서 볼 수 없는『징비록』[36]의 내용과 일치한다. 서두의 왜국 기사나 송상현의 시 등에서 보면 <경판본>은 <국립도서관본 한문본>이나 <한남대학본(소재영 주역본)>과 내용이 유사하며, 아마도 한문본이 그 원형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은『징비록』등 임진왜란의 각종 실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37] 따라서 <경판본>은 권하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기술에 충실한 이본임을 알 수 있다.

<국립도서관본>은 설화성이 바탕이 된 국문본의 대표작으로 총 85면 매면 12~14행, 매행 21~25자씩 국문 반흘림체로 정결하게 필사되어 있다. <국립도서관본>의 구성을 줄거리를 바탕으로 몇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에서는 최일경의 탄생과 유배, 왜군이 침입과 관군의 패배와 선

35) 소재영 · 장경남, 위의 책, p.16.
36) 활자본. 16권 7책. 이 책은 현재 4종이 전하는데 저자 자신의 필사원본인『초본 징비록』(국보 132)과 16권으로 된『징비록』, 2권으로 된 간본(刊本), 필사본이 있다. 1592(선조 25)~98년까지 7년에 걸쳤던 임진왜란의 원인 · 전황 등을 기록한 책으로, 전란이 끝난 뒤 저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울 때 저술한 것이다.
37) 위의 책, p.17.

조의 피란 등 전쟁 초기의 정황과 이순신과 강홍립 · 김응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최일경의 이인적인 행위가 소설적 허구성에 맞게 새롭게 서술되었다.

둘째 단계는 <국립도서관본>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 명나라의 구원장 이여송의 오만과 행적, 김응서와 강홍립의 영웅적인 활약, 왜군의 패배가 허구성을 띠며 서술되었다.

셋째 단계에서는 이여송이 조선의 지맥을 끊다가 신령에게 쫓겨 돌아가고, 김덕령이 죽는 장면이 극적으로 그려진다.

넷째 단계에서는 김응서 · 강홍립의 일본 정벌과 실패, 사명당의 항왜설화와 왜왕에게 항서를 받아낸 승리, 사명당의 임종이 낭만적으로 그려진다.[38]

이 이야기의 구조는 <경판본>을 대표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계열 이본들과 이야기 구성의 흐름과 인물양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이 이야기 자체의 성격은 상당한 정도로 변질되어 있다.

서술자는 영웅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들을 중심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이들의 활약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구성을 택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신이한 탄생, 비범한 성장, 탁월한 능력과 출세,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는 자의 계략에 의한 고난, 고난의 극복, 전장에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승리라는 모티프의 서술구조로 나타나 있다. 특히, 최일경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 무능한 선조를 비판의 눈으로 서술하고, 또한 최일경의 일대기와 임진왜란의 시작과 종결이 작품의 서두서부터 맞물려 있는 구조상의 특이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 밖의 등장인물인 이순신, 강홍립, 김응서 등의 인물의 행동양상 역시 역사적 사실에서 변이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립도서관본> 역시 역사계열 변형 이본이기 때문에 설화성 짙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도 서술자가 최일경, 관운장, 선조 등의 인물을 통하여 작위적으로 사건에 현실성을 부여하며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39]

---

38) 권혁래, 앞의 논문, p.76 참조.
39) 권혁래, 위의 논문, pp.75~76 참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국립도서관본>의 특징은 설화성이 강한 독자적 주인공들의 활약이 부각된 민중취향의 이본이면서도 역사적 인물과 사실에 바탕을 둔 민중의식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구성상 가장 성공적인 이본으로 보인다.

<권영철본>은 모두 54면, 매면 16행, 매 행 22~28자의 한글 반 흘림체 필사본이다. 말미에는 '무인십이월초삼일'이라는 필자 연대가 첨기되어 있다. 글씨가 와탈이 심하며 인명과 지명 등에 속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필사자가 지적 수준이 낮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권영철본>은 설화성이 강한 대표적 이본으로[40]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여송의 화상을 얻어 가서 청병을 하는데 성공한다든지, 여송의 천거를 받은 김덕령이 왜장 조서비, 모란, 한목, 복지 등을 차례로 베고 평수길을 추방하며, 이여송이 관운장의 천거를 받아 이순신을 발탁하는 등 이여송이 형식상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병 과정에서 이여송이 트집을 잡거나, 종전 후 김덕령을 동반 귀국하려 하고 끝내는 산신령에게 피살되는 대목에서 보면, 그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거부적 감정이 짙게 배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히려 김덕령 같은 민중영웅에게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조선 장수에게 죽은 왜장의 후예들이 부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선 재침에 나선다든지, 이여백이 피살된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조선 정벌에 나서는 설화에서 보면, 민중들에게는 침략국인 일본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원병국인 명나라에 대한 거부감도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영철본> 중 조선의 양대 명장은 역시 김덕령 · 이순신이다. 그러나 이순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이 서술상에 드러난다.[41] 김덕령은 이여송이 발탁한 인물이요, 이순신은 관운장이 천거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김덕령이 왜장들과 싸워 차례로 승리하지만 이순신보다는 지위가 낮다. 그러나 전란능력에서 지위에 불만을 품었던

40) <권영철본>에서 군주는 은조대왕으로 변이되었다.
41)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pp.380~381.

김덕령도 결국 이순신에게 감동되고 만다.

이렇듯 <권영철본>은 많은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는 대신에 임진왜란시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구성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중 어떤 인물이 진실로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는지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들을 명확히 부각시킨다. 그리고 서술자는 임진왜란 중 진실로 애국적으로 투쟁하여 조국에 큰 공을 세웠거나 억울하게 또는 장하게 죽은 인물을 작품의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을 영웅적으로 활약하게 하면서 역사의 이면적인 의미를 낭만적으로 결말지어 제시한다.[42]

이상 역사적 사실에 가장 가깝게 서술된 <경판본>, 설화를 바탕으로 영웅부각이 두드러진 <국립도서관본>, 역사적 사실과는 가장 거리가 먼 <권영철본>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비록 허구성이 가미되었다고 하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은 명나라 구원장도 유능한 위정자도 아닌 조선시대의 주변적 계층의 인물 - 김덕령, 이순신, 김응서, 사명당, 의기 - 이라는 점이다. 또한 성장된 민중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 창조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일경도 민중영웅이라는 의미아래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임진록>에서의 민중영웅의 부각은 임진왜란 전 후의 대외정세와 조선의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삼국(조 · 명 · 일)의 정세와 조선의 사회상

임진왜란은 1592년 4월부터 1598년 11월까지 햇수로는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중간 3년의 휴전 기간을 빼면 실제로는 4년쯤 전쟁을 치른 것이다.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명 왕조와 일본의 예신막부의 몰락, 조선

42) 권혁래, 앞의 논문, p.50.

왕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 당시 동아시아권 전역을 크게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이 대사건의 원인은 16세기 동북아시아 전반의 역사적 상황에서 살필 수 있다. 16세기의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다.

> 일본 · 중국 두 나라 역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16c는 상품유통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던, 다시 말하면 상업자본이 크게 발달하던 시대이다. 국내적으로 농촌시장이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형성되는 한편, 국제무역상으로도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는 발전이 있었던 시대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와 같은 경제적 일대 변혁기의 정치적 상황이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명 말기의 중국은 민변 · 노변(民變 · 奴變)이 잇따르는 가운데 환신(宦臣)과 사인(士人)의 충돌이 잦았으며, 일본 역시 일규(一揆)와 전국(戰國)의 상황이 한 세기를 거의 일관하다시피 하였다.[43]

이러한 16세기의 상황에서 일본은 전국시대의 전란이 수습되어지고 신흥과 몰락이 엇갈린 상태에서 대명(大名) · 토호(土豪) · 일반무사 등의 불평분자 처리가 큰 문제였다. 이에 일본전역을 통일한 평수길은 그들의 불평을 없애려면 해외에서 분출구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대외무역의 이익을 알고 있던 대명들 즉, 나베시아 · 가모오 · 가메이 등의 대명은 해외 정복이 자기들의 대외무역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조선 침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연산군 이후 명종대에 이르는 4대 사화와 훈구 · 사림 세력 간에 계속된 정쟁으로 인한 중앙 정계의 혼란, 사림 세력이 득세한 선조 즉위 이후 격화된 당쟁 등으로 정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군사적으로도 조선 초기에 설치된 국방 체제가 붕괴되어 외침에 대비하기

---

43) 이태진, 「16c 東아시아의 文化와 歷史的狀況」,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동간행회, 1985. p.484.

위한 방책으로 군국기무를 장악하는 비변사라는 합의 기관을 설치했으나, 이것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징발된 군사들마저 훈련을 제쳐둔 채 갖가지 부역에 동원됐고, 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강화된 수탈과 지주제의 전개로 인한 토지의 상실 때문에 유망함에 따라서 군사로 동원될 농민들이 제대로 파악 조차되지 않았으며, 군대의 편성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44] 이러한 조선의 군사적 무방비함은 전란 초기 조선군의 대패로 이어진다.

이이는 북쪽의 여진과 남쪽의 왜국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국가 재정의 부족과 유성룡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사회와 정치권은 점점 해이해져 근본적인 국가방책이 성립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왜의 국내사정과 주변국의 여건으로 발발하게 된 것이 임진왜란이다.

초기에 일본군의 승세로 시작되었으나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유격전과 명나라 구원군의 등장,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은 관군의 반격으로 왜군은 열세에 몰려 강화회담이 제기된다. 이러한 왜와 명의 강화교섭 진전 배경에는 '조선군을 구원하러 온 이여송이 거느리는 명군은 1593년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나, 서울 수복전에서는 패하였다. 이에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왜군에게는 식량이 문제꺼리로 등장하였다. 조선 측의 청야작전과 전쟁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군량의 현지 조달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조선 해군의 활동으로 본국으로부터의 보급도 여의치 않았다. 이에 일본군 내부에서 염전풍조가 일어나고 지휘층의 내부 반목이 격화'[45] 됨이 주된 원인이었다. 회담은 결렬되고 3년의 휴전 뒤 1597년 정유왜란이 있었으나 이 재침에서는 조선군도 군비를 갖추었고 명의 원군도 합세했으며, 무엇보다 해군의 역할로 승세가 왜국에 유리하지 못하였다.

결국 1598년 평수길이 병사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명은 임진왜란을 통하여 막대한 전비 지출과 군사적 피해로 인해 전란 중 대두한 여진족인 청에

---

44) 이재창, 앞의 논문, p.18.
45) 閔斗基編,『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76, p.124.

의해 멸망되고 만다. 일본 또한 평수길이 바랐던 강력한 직속군단의 구성 기도는 결과적으로 풍신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그가 죽은 후 덕천씨와의 대결에서 평수길의 친신대명은 조선출병 때문에 약화되고 출병하지 않은 덕천정권은 상대적으로 강력해져 풍신정권은 망하고, 막번시대가 열리게 된다.[46]

한편, 명은 대군을 조선에 파병하여 국력이 소모된 데다 국가 재정까지 어려움에 빠져 만주에 있던 여진족의 세력이 팽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마침내 명에 이어 청나라가 새로이 들어서게 된다. 더불어 국난을 겪으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민중들은 전란시 명군의 극악한 횡패로 인해 반명사조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 중의 기근과 전쟁의 처절함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성 문 밖에 쌓인 시체들의 인육을 먹고, 명군이 포식하여 토해 놓은 토사물을 몰려들어 주워 먹었다는 임진왜란 실기류의 기록[47]으로 보아 당시 처참했던 조선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처절한 생존전쟁과 전란 전 지배계층의 안일했던 행태는 전란 후 민중이 한층 성숙된 시각으로 조선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

46) 閔斗基編, 위의 책, p.125.

47) 오희문, 『쇄미록』, 1594년 4월 3일 조, 이민수 역,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1990, p.295,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pp.193~194에서 재인용.

Ⅲ. 민중영웅의 등장과 인물의 형상화

이 장에서는 성장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대변하는 민중영웅들에 대해 각 인물에 대한 실제 역사에서의 모습을 정리한 후 소설에서 나타나는 성격과 작품 속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의도를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1. 무능한 군주 비판의 수단 최일경

‘영웅의 일생’을 보여주는 귀족적 영웅상을 대표하는 인물 최일경은 <임진록> 전편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대부 계급으로 등장한다. 그는 직접 전장에 나아가 왜적과 싸우지는 않지만 임진왜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모든 인물, 심지어 선조보다 더 우위에 설정되어 있다. 그는 역사상 실존인물이 아니면서도 그가 등장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사라지면서 전란이 종결되는 <임진록>의 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다. <임진록>의 수많은 이본에서 최일경의 신분과 그가 지닌 능력은 공통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있다.

그는 <임진록>에 등장하는 민중영웅들 중 유일하게 영웅적인 탄생에서 성장, 출세, 고난 등의 과정이 여타 고전소설의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과 같이 자세하게 전개되고 있어, ‘영웅의 일생’을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조동일이 제시한 일반적인 ‘영웅의 일생’[4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48)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454.

B) 비정상적으로 잉태되었거나 출생하였다.
C)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D) 어려서 고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E) 구출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F)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G)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이 유형에 맞추어 최일경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능우본>의 경우 최일경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 태생으로 고귀한 혈통임을 드러낸다.

> 선조대왕께서 왕위에 오르시어 다스리는 십 삼년 동안에 최위공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 태생으로…(중략)…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섬기므로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였다.[49]

또, <국립도서관본>에서 최일경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한 본래 천상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보통 인물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 "나는 옛날 한나라 슈졍후 관운장 니압더니 천상의 득죄ᄒᆞ와 부운유슈갓치 단니옵더니, 우리 동싱이 조션국왕이 되여 습기로 동싱의계 의탁고져 ᄒᆞ와 옥국션관의 갓습더니, ᄒᆞ교ᄒᆞ시되, '이 아희는 ᄂᆡ슬하의 두고 ᄆᆡ일 ᄉᆞ랑ᄒᆞ더니, 인간화복 쑴인 문셔 한 권을 일은 죄로 인간의 적하ᄒᆞ되 널노ᄒᆞ여곰 암양ᄒᆞ라' ᄒᆞ시기로, 다려다가 부인게 드리오니 부인은 귀히 길르압소셔."[50]

> 일경이 점점 자라 삼ᄉᆞ셰이 당ᄒᆞ니 그 범졀이 열 ᄉᆞ람얼 당ᄒᆞ고 칠셰예 ᄉᆞ셔삼경이며 ᄇᆡ가어을 두불통지ᄒᆞ고 쳔문지리와 만고흥망을 모를 거시업고 십삼셰에 등과ᄒᆞ야 십뉵셰에 이조판서 심구 셰에 우의졍을 ᄒᆞ니 명망이 조졍의 쓸치더라.[51]

---

49) <이능우본>, p.295.
50)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268.
51)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270.

이렇듯 그는 고소설의 일반적인 영웅처럼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출세를 거듭하며 상승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뒤이어, 조실부모하여 3년 거상을 마치고 가산을 탕진하여 유모에게 의지하여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가정적인 시련을 겪게 되고, 사회에 나아가 선조가 꾼 꿈을 왜침의 징조로 해몽하면서 동래에 유배됨으로써 사회적 시련도 겪게 된다.

> 왕이 ᄃᆡ로왈 이러ᄒᆞᆫ 승ᄃᆡ에 망영된 말노 죠졍을 요동케 ᄒᆞ니 맛당이 관작을 삭탈ᄒᆞ고 ᄇᆡ쇼를 중ᄒᆞ여 동ᄂᆡ로 원찬ᄒᆞ라 ᄒᆞ시고 즉시 젹쇼로 가니라.[52]

다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영웅의 일생구조에 따라 최일경 역시 유배지인 동래를 떠나 왕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활약상이 시작된다.

> 젼하 할희일비ᄒᆞᄉᆞ 일경의 손을 잡고 용누를 흘리시며 왈, "과인이 불ᄒᆞ여 경을 쳔리 밧게 보ᄂᆡ고 이갓치 ᄃᆡ환을 당ᄒᆞ니 누를 원망ᄒᆞ리요. ᄌᆞ후로 경얼 잇지 못ᄒᆞ여스나 마춤 부라지 못ᄒᆞ고 오날 경을 ᄃᆡᄒᆞ니 도로혀 쉼갓도다. 그러ᄒᆞ나 경은 혐의치말고 방적을 의논ᄒᆞ라."[53]

선조와 최일경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선조의 뉘우침 뒤에 최일경은 선조를 도와 온갖 노력과 지혜를 기울인다. 김응서를 천거하고, 김응서에게 적장 소섭을 살해할 계획을 제시하는 행위, 중원청병을 권유하며 청병사 유성룡이 거절당하고 돌아옴에도 원병이 스스로 올 것을 예언하고, 또, 압록강을 건너려는 원병이 온갖 트집을 잡아 왕상을 핑계로 회군하려 했을 때도 왕에게 계책을 일러주어 명나라 회군을 멈추게 하는 등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능력발휘 양상을 볼 때, 최일경은 표면적으로 국난의 위기에서 군주를 도와 나라를 구하는 귀족영웅이면서 동시에 민중이 원하는 모습으로 창조된 이상적인 민중영웅임이 분명하다.

---

52)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272.
53)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292.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야기의 전반부와 달리 최일경이 유배지인 동래를 이탈하여 의주로 올라오는 부분부터의 이야기 서술이다.

'비록 왕명은 업시나 본국 신민이 되여 국ᄉᆞ의 죽어도 엇지 한니 잇스리요.'[54]

왕명을 지키자면 유배지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겠지만, 최일경의 경우 왕명도 없이 유배지를 이탈하였다. 이런 행위는 나라를 위한 것이 반드시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취할 수 있는 행위이다.

최일경이 유배당한 이유는 선조의 꿈을 왜(倭)자로 풀이하고 머지않아 왜병이 조선을 침범할 징조라고 했기 때문이다. 요망한 말로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죄명은 왜적의 침입으로 무죄임이 밝혀졌지만, 중요한 것은 왕명에 의해 방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사태의 위급성을 느낀 최일경이 자의적으로 동래를 떠나고 마는데, 이것은 명백히 왕명을 어기는 행위였다. 신하가 왕명을 어기는 행위가 비록 대의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선의 유교적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다. 최일경의 이러한 처사는 임금에 대한 대의를 빙자한 도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임금이 최일경을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후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 최일경이 임금의 우위에 섬으로써 도전적인 성격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55]

"조션왕을 보니 졍셰가 가긍ᄒᆞ나 왕상이 그러ᄒᆞ니, 엇지 사직을 안보ᄒᆞ리요." 도적을 물리치나 공이 업슬 듯ᄒᆞ니 다시 회군영을 ᄂᆞ리기ᄂᆞᆯ, 젼하 일경을 불너 왈, "이여송은 당시 영웅이라. ᄂᆡ두승픽를 미리 아ᄂᆞᆫ지라. 젼하을 뵈옵고 퇴병ᄒᆞ려 ᄒᆞ오니, 복원 젼하ᄂᆞᆫ 당진 앞폐 칠셩단을 뭇고 단 우에 올나 '종묘사직을 바리계다'ᄒᆞ며 억조빅셩에 일을 ᄉᆡᆼ각ᄒᆞ여 방셩ᄃᆡ곡ᄒᆞ시면 젼하의 슈문 왕긔를 알고 싸홈을 ᄌᆡ촉ᄒᆞ오리다."[56]

---

54) 소재영 · 장경남, 위의 책, 같은 면.
55) 신태수, 앞의 논문, p.425.

위의 내용은 최일경의 활약상 중 왕상을 트집 잡아 원병군을 회군하려는 이여송을 되돌리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최일경의 묘안은 왕이 독 안에 들어가 우는 것으로, 상황상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야 할 지경이니 그릇된 처사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임금이 독 안에 들어가서 울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임금의 권위가 실추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여송의 방약무인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지만, 이여송의 회군을 막을 방안만 앞세우고 임금의 위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일경에게서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57] 16세기 조선에서는 임금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고, 임금의 권위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니 충이라는 보호막에 가려져 있던 임금이 사실은 무력한 존재로 밝혀진다. 임금이 당면한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과 권위를 갖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최일경이 난국을 도맡아 처리해 나가는데서 무능한 군주와 현명한 신하가 현저하게 대조된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최일경이라는 인물이 실존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귀족적 영웅의 모습을 보이면서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상적인 사대부상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생부터 완전한 영웅의 모습 최일경은 <임진록>에서 무능한 왕과 유능한 신하로 계속해서 대비됨으로써 충과 나라를 위한다는 애국적 행위 이면에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임금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표출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중에 의해 완성된 영웅 김덕령

실제 역사에서 김덕령은 임진왜란 전후 7년을 통하여 익호장군, 초승장군

56)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320.
57) 신태수, 앞의 논문, p.426.

에 이어 충용군의 군화를 하사 받고, 또 세상에서 신장이라고 까지 높임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비극적 인물이다.

역사에서 김덕령은 조부 때부터 벼슬을 하지 못한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일찍 부친을 잃고 모친을 지성으로 섬기는 효자였으며, 평소에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였다. 그의 성품은 항상 겸손하여 자기 몸을 낮추었으므로 사람들이 아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58] 그는 모친상 중이었으나 담양부사 이경린, 장성현감 이귀의 천거, 전라감찰사 이정암의 기복종군의 요구로 여러 번 거절한 끝에 형조좌랑으로 임명받아 상복을 벗고 기병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조선과 왜국이 강화회담을 갖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전쟁을 중지시켰다. 당시의 전시 상황은 김덕령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여 왜적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명나라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와 화의가 진행되어 급기야는 명의 주장으로 전투 중지령이 내려져 많은 의병이 정세만 관망하고 있었다. 또 의병들 가운데는 적당히 때만 넘기려는 누락자가 상당수 있었고 군량과 병기가 부족해 사기는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김덕령은 진주에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싸우겠다고 요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적군을 눈 앞에 두고도 싸우지 못하는 울분과 점점 불리해지는 주위 여건을 쇄신시키기 위해 그는 군법을 엄하게 세웠다. 그 과정에서 사대부 계층과의 마찰로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 결국 김덕령은 이몽학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무고로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죽고 만다. 그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후 혹시나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소란을 피울까봐 조정에서는 그의 죽은 내력을 특별히 알려야 할 정도로 그에 대한 민중의 선망은 대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실존 인물인 김덕령은 <임진록>의 거의 모든 이본에 등장하는 영웅이다. <국립도서관본>에서 김덕령은 '만고효자충신'이라는 초점에 맞춰 등장한다. 소설 속에서 김덕령은 적진에 가서 도술을 보이고 왜군을 질타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

58) 국역 연려실기술 4권, 참조.

청정의 진의 ᄌᆞ최 업시 드러가 웨여 왈 "나ᄂᆞᆫ 조션장슈 김덕양이라 왜적의 씨ᄅᆞᆯ 업시 ᄒᆞ려니와 쳔운이 불힝ᄒᆞ여 ᄂᆡ 몸이 목슘을 앗기거든 밧비 사라가라. 너의 명이 ᄂᆡ 슈즁의 달여스니 ᄲᆞᆯ니 도라가라. 만일 ᄂᆡ 말을 밋지 못하거든 ᄂᆡ일오시에 올 거시니 그ᄯᅧᆨᄅᆞᆯ 기ᄃᆞ려 ᄌᆡ조ᄅᆞᆯ 구경ᄒᆞ되 빅지ᄅᆞᆯ 오려 너희 군졸 머리우희 낫낫치 붓치고 기ᄃᆞ리라." ᄒᆞ고 맛참 간ᄃᆡ 업거ᄂᆞᆯ[59]

그러나 김덕령은 세상에 나오기까지 심한 충효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임진록>속에서의 김덕령은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지성을 섬기며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60] 상(喪)중인 관계로 왜적이 침입하여 오나 적극적으로 전장에 나아가지 못한다. 유교의 효를 근본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윤리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러한 효라는 윤리로 인해 그는 청정의 진에 들어가지만 또 상중이라는 윤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왜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다만 신술로써 적을 놀라게 하여 물리친다. 종국에는 충효의 갈등에서 기인한 적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김덕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다.

어영정 님번한 긴슌달이 탑젼의 알외되 곡산쌍의 김덕양이 두슐이 쳔신가트되 완연이 안ᄂᆞ국ᄉᆞᄅᆞᆯ 돕지 안습고 청정의 진의 삼일 왕ᄂᆡᄒᆞ며 슈즉이 만ᄒᆞ와 후환이 될가 ᄒᆞᄂᆞ이다. 왕이 즉시 ᄉᆞ신을 보ᄂᆡ여 나ᄅᆡ하라 하시니 ᄉᆡ신이 나려가 덕양을 잡아 올리니 젼하 ᄃᆡ칙 왈...[61]

김덕령은 탁월한 용력이 있지만 나라를 위하지 않고 청정의 진중에 출입하여 수작을 했다는 불충으로 모함을 받아 엄청난 죄목을 뒤집어쓴다. 그러나 김덕령은 효를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소신의 아비 거상을 닙고 왜적을 퇴치 못하와 삼일 왕ᄂᆡᄒᆞ와 퇴격ᄒᆞᆫ 죄박게 업

59)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300.
60) 실제 역사에서도 김덕령은 형을 따라 의병으로 나서려 했으나, 어머니를 돌보라는 형의 만류로 고향으로 돌아와 때를 기다리게 된다.
61)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p.339~340.

ᄂᆞ이다."[62]

결국 김덕령의 체포는 그가 충효의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김덕령은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기를 참지 못하여 청정의 진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상중이라는 윤리적 한계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을 과감히 무찌르지 못하고 단지 도술을 보여 청정을 놀라게 하여 스스로 물러가게 한 것이다.

김덕령은 왜적에 대해서는 효를 거슬려 가면서까지 대응의지를 보이지만 임금에게는 항거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 왕이 ᄃᆡ질왈 무ᄉᆞᆷ 반복지셜노 목숨을 살고져 ᄒᆞᄂᆞᆫ다 무ᄉᆞ을 호령ᄒᆞ여 무슈 ᄂᆞᆫ타 ᄒᆞ되 일분도 겁ᄒᆞ지 아니ᄒᆞ여왈 신이 죄 업ᄉᆞ오이다 ᄒᆞ니 왕이 덕양 죽지 아니ᄒᆞᆷ을 보시고 더욱 질노ᄒᆞᄉᆞ 각별 즁장ᄒᆞ라 ᄒᆞ시니 덕양이 통곡왈 "소신을 굿ᄒᆞ여 죽이려 ᄒᆞ시니 쵸ᄌᆞ충신 김덕양이라 삭여 후셰에 불충지죄를 면케 하소서." 왕이 고히 녁여 현판의 효ᄌᆞ츙신 김덕양이라 샥여거ᄂᆞᆯ 덕양이 그제야 앙천 ᄃᆡ곡왈 십년을 도슐ᄇᆡ와 공을 일우고져 ᄒᆞ여더니 조물이 시긔ᄒᆞ여 도로혀 누명을 닙고 죽으니 슈원슉우 ᄒᆞ리요. 십연후면 ᄯᅩ한 국가의 ᄃᆡ환이 잇슬 거시니 이ᄂᆞᆫ 다 쳔지운슈라 엇지 면ᄒᆞ리요. ᄒᆞ고 다리에 빈울얼 쎄고 ᄇᆡ한 ᄆᆡ 한 ᄀᆡ을 마즈니 즉시 쥭ᄂᆞᆫ지라.[63]

김덕령은 사회윤리의 불합리적인 상충 작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선조로부터 '효자충신 김덕령'이라는 현판을 받음으로써 그가 생전에 지녔던 한이 해원되고 있다. 하지만 치죄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과 선조로부터 현판을 하사 받음으로 김덕령의 죽음이 해원된다는 설정은 소설로서 충이라는 유교적 이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판본>에서는 평안도 땅에 병법을 숭상하고 여력과 용맹이 과인한 김덕

62)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40.
63)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41.

령이 있는데 왜적이 침입하나 상중이라 나아가지 못한다.[64] 여기에서 김덕령의 비극은 싹튼다. 능력이 있으면서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형편, 이러한 이유로 김덕령이 잠시 청정의 진에 들어가 신술로써 적을 놀라게 하고 적을 물리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져 적과 내통한 것으로 되어 조정에 잡혀와 치죄를 당한다. 김덕령의 죄는 국난시에도 출전하지 않음과 적과 상통했다는 두 가지이다.[65] 충과 효의 불합리한 충돌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 "네 지조를 품고 난시를 당ᄒᆞ여 몸을 감초문 무삼 연괴며, 적진의 드러가 청정으로 삼일 상통ᄒᆞ믄 무삼 일고."[66]

치죄 당하는 와중에서 김덕령은 부친상이라는 상황, 모친에 대한 효, 적을 물리쳤음을 극구 주장하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다.

> "소신이 형벌노는 죽지 아니ᄒᆞ올 거시니 '만고충신 김덕냥'이라 ᄒᆞ여, 현판의 삭여 후 셰의 유전케ᄒᆞ오면 신이 스ᄉᆞ로 쥭ᄉᆞ오리다." ᄒᆞ거늘, 상이 ᄒᆞᆯ 일 업셔, "덕냥의 말ᄃᆡ로 시힝ᄒᆞ라." ᄒᆞ시니, 그제야 덕냥이 다리을 드러 비슈로 비눌 ᄒᆞᄂᆞᆯ 써히고 '치라' ᄒᆞ니 나장이 ᄆᆡ를 드러 친즉 즉 ᄀᆡ의 죽으니라.[67]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 연려실기술에 기술된 김덕령이 죽는 장면은 아래와 같다.

> 다만 신이 만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이다. 계사년에 자모가 별세하였는데 3년상의 슬픔도 잊고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에 흥분하여 정을 끊고 상옷을 벗어 던지고 칼을 잡고 나섰으니 여러 해 종군하여 그만한 공도 세우

---

64) <경판본>에서도 역시 김덕령의 행위는 능동적이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그의 행위는 좌절된다. 여기에서도 충과 효의 유교이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65) 문형준,「임진록 연구 -인물의 문학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p.25.
66)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경판본>, p.226.
67) 위의 책, 같은 면.

지 못하였으니 충성도 이루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효도에만 어겼나이다. 허물은 이것 뿐이오. 나 만 번 죽어도 용서받기 어려우며 구구한 충정을 하늘이 굽어 살피옵나이다.[68]

위 같이 말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끝내 굽히지 않아 26일 동안 형장을 치고 6차례나 심문하여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큰 나무토막에다 묶고 좌우로 둘러싸서 마침내 형장 아래 죽고 만다.[69] 그러나 <경판본>에서는 형벌로는 그를 죽이지 못하고 '만고충신'이라는 현판을 새겨 주고서야 죽는다는 결말로 귀결되었다. <경판본>에서도 역시 김덕령의 죽음을 크게 미화시켜 그의 원한이 '만고충신'이라는 현판으로 해원되고 있다.

<권영철본>에서 김덕령은 '효자충신 김덕령', '만고충신 김덕령'의 모습과는 그 해원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권영철본>에서는 김덕령 이야기를 논리적인 서술과 민중의식, 그리고 영웅적인 면모를 한층 더 부각시킨다.[70] 여기에서 김덕령은 <권영철본>의 작자층[71]에 의해 그의 가능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김덕령은 '하늘이 낸 장수'로 이여송에 의해 설정되어 천거되어진다.

일일은 여송이 쳔긔를 보고 놀ᄂᆡ여 가로ᄃᆡ "죠션국 경상도 고령ᄯᆞᆼ의 금덕영은 ᄒᆞ날니 ᄂᆡᆫ중슈라." 하고, 조션 군왕계 ᄑᆡ문 ᄒᆞ여, 금덕영을 ᄎᆞᄌᆞ 보ᄂᆡ쇼셔." ᄒᆞ엿겨날, ᄉᆞᆼ이 ᄑᆡ문을 보시고 고령관의 관ᄌᆞ 노와 금덕영을 ᄎᆞ진이 과연 ᄉᆞᆼ신으로 잇난지라, 본관이 덕영을 최송ᄒᆞ여 보ᄂᆡ니라.[72]

이러한 김덕령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상중의 몸이지만 국령을 거역하지 못해

68) 국역 연려실기술 4권, p.280.
69) 국역 연려실기술 4권, pp.280~281, 참조.
70) 문형준, 앞의 논문, p.22.
71) <권영철본>은 가장 설화적 요소가 강한 이본으로 그 필사본의 글씨가 와탈이 심하고 인명과 지명 등에 속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아 그 작자층이 지적 수준이 낮은 민중들로 사료된다.
72)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권영철본>, p.410.

즉시 발행하여 이여송이 머무르는 압록강에 다다른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기병한 김덕령은 화월을 통해 왜장 조서비를 살해하는 대공을 세운다. 이에 왜적이 침입하여 조서비를 살해한 원수를 갚고자하여 김덕령 인수를 요구하자 조선의 제장들은 모두 김덕령을 내주어 화친을 맺고자하나 이여송은 끝내 거절한다. '하늘이 낸 장수'이기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김덕령은 '국가의 흥망'을 책임지고 있는 영웅 장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덕령의 역량은 한층 더 부각되고 조선의 제장들은 나약하고 무능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여송은 조선의 여러 장수가 다 죽어도 김덕령을 보내지 못한다하여 김덕령을 옹호하기에 이른다.

영웅장수로 묘사된 김덕령이 이여송의 지시에 따라 용력과 신술로서 왜장 모란, 한복, 북지 등을 베고 급기야는 왜국 최고의 적 평수길과 공중전에서 승리하여 왜적을 물리친다. 후에 이여송이 난을 평정하고 철군할 때에도 김덕령을 중국에 동행하려 한다. 그러나 동행의 요구는 선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이여송은 김덕령이 중원에 가면 재주를 빛낼 것이라 하여 못내 아쉬워한다. 김덕령의 거처에 대한 선조의 처사에서 하나 특이한 사실은 선조의 행위를 통한 김덕령의 부각이다.[73] 선조는 이여송의 청을 거절하고 김덕령을 보내지 않는다.

> "소중이 나올 ᄌᆡ 군ᄉᆞ ᄉᆞᆷ만 명을 거날이고 왓ᄉᆞᆸ든니, 이제 졈고ᄒᆞᆫ직 반졀이나 없ᄉᆞ오니 쳔ᄌᆞ게 드려가 무어라 ᄒᆞ오릿가. 츙슈ᄒᆞ여 쥬옵소셔."
> ᄉᆞᆼ이 마지 못ᄒᆞ여 졍병 ᄉᆞᆷ만을 쥬면, "츙슈ᄒᆞ라." ᄒᆞ신ᄃᆡ, 여송이 여ᄌᆞ오ᄃᆡ, "군ᄉᆞ을 쥬지 ᄆᆞ옵고 금덕영을 쥬옵소셔." ᄉᆞᆼ이 가로ᄉᆞᄃᆡ, "아모리 중군으 언득이 ᄒᆞ히 갓터나 덕영은 보ᄂᆡ지 못ᄒᆞ리라." ᄒᆞ신니, … (중략) …
> 여송이 덕영으 손을 ᄌᆞᆸ고 이르ᄃᆡ, "즁원국 드러 거면 그 ᄌᆡ조 족키 즁원의 빗날 거시라. 그ᄃᆡ 님금이 허락지 안니ᄒᆞ시며 동힝치 못ᄒᆞ니 ᄋᆡ달ᄯᆞᆫᄃᆞ, ᄋᆡ달ᄯᆞᆫᄃᆞ."[74]

---

73) 문형준, 앞의 논문, p.23.
74)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권영철본>, p.452.

실제 역사에서 김덕령을 죽인 것은 선조이다. 그러나 <임진록>에서 선조는 끝내 김덕령을 보내지 않고 그를 명 · 조선군 3만에 해당하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이여송의 청을 거절할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 이것은 선조의 자주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실과 반대 상황 설정으로 하여금 당시 명에 대한 사회저변의 분위기와 민중의식이 선조와 집권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대 그렇지 못한 사실에 대해 그러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부정을 <임진록>을 통해 개진한 것이다.

김덕령의 결말은 '하늘이 낸 장수'이며 국가흥망을 짊어지고 있고, 병사 3만에 해당하는 장수임에도 왜적의 재침에서는 무력하게 패하여 전사하고 만다.

> 왜졸이 한양셩도를 둘너ᄊᆞ고 잇ᄯᆞ가 긔별을 듯고 한양셩으로 올나온니, 왜졸이 한양 성도을 둘너ᄊᆞ고 겁칙ᄒᆞ거날, 덕영이 ᄃᆡ분ᄒᆞ여 소릭을 노피 ᄒᆞ여 왈, "너으 형으 조셔비도 ᄂᆡ 죽여거든 넨들 엇지 당적ᄒᆞ리요." ᄒᆞ고, 명청금을 놉피 들고 왜졸을 쳐드려간니, 왜졸이 덕영을 보고 마음이 알연 두려오ᄃᆡ ᄉᆞ싱을 모ᄅᆞ고 달나드려 크게 위여 왈, "원슈 덕영아 금일ᄋᆡ 우리 부형 원슈을 갑푸리라." ᄒᆞ고, 달여드려 철환을 친니, 이 덕영이 철환을 엇지 피ᄒᆞ리요. 두 눈 ᄉᆡ예 마ᄌᆞ 말 아릭 써려진니, 왜졸이 달나드려 덕영으로 머리을 베혀 들고 진즁의셔 츔츄며 이르ᄃᆡ, "이지야 부형으 원슈를 갑파 신니 곳 죽어 한니 업또ᄃᆞ."[75]

하늘이 낸 장수이고 그가 앞에서 조서비 · 모란 · 한복 · 북지 · 평수길 등의 왜장을 물리치던 용력과 지모를 보아서는 쉽게 죽지 않아야 하고 왜장 조식도 쉽게 물리쳐 승리해야 한다. 그러나 의병 영웅 김덕령의 죽음은 필연적인 역사적 사실이며, 현실에서는 그의 죽음이 선조에 의한 것일지라도 김덕령이 살아서 선조나 그를 모함한 내적에게 희생되기 보다는 외적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전사하여 민중의 영웅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민중

75) _____, 위의 책, <권영철본>, p.458.

의 요청이 소설적으로 표현된 것이다.[76] 또한 민중 자신을 김덕령에 투영시킨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에서 제시한 김덕령의 원한, 즉 기병하여 종군하였지만 공을 세우지 못한 한과 억울하게 반역죄로 몰려 죽게 되는 원사의 한을 <권영철본>에서는 왜적을 물리쳐 공을 세우고, 억울한 죽음이 아닌 전사라는 영광스런 죽음으로 변형시켜 그 한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고 있음을 보았다. 즉, 실제 김덕령의 죽음이 민중이 바라는 영웅의 결말이 아닌 원사라는 사실을 <권영철본>에서는 <국립도서관본>, <경판본> 서술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의 죽음을 영웅적 죽음의 결말로 처리함으로써 그 원한에 대한 해소와 동시에 시대가 원하는 민중의 영웅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이처럼 작자층이 민중인<권영철본>에서 그 어떤 이본보다도 김덕령의 죽음을 승화된 민중적 영웅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민족의 성웅 이순신

이순신은 <임진록>의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임진록>의 특징인 이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등장하지 않은 이본은 거의 없다. 임진왜란의 사회 계층적인 조건과 관계된 인물이 서술자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고려될 때 충분히 이해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77] 이순신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역사적 실존인물로 소설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임진록>에서 그의 죽음도 사실(史實)과 비교해 전혀 반감되지 않을 만큼의 감동을 주고 있다.

이순신(1545~1598)은 선조대 인물로 덕수 이씨로서 자는 여해요, 시호는 충무이다. 32세 봄에 벼슬길로 나아간 후 여러 벼슬을 역임하게 된다. 탁월

76) 조동일,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상산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pp.483~502, 참조.
77) 이재창, 앞의 논문, p.35.

한 능력으로 조선 최고의 수군장이 되었으나, 승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시련도 적지 않았다. 원균의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을 받았고 왜적의 술수에 의해 삭탈관직을 당하는 비운에 빠지기도 했다. 원균의 패사 후 다시 통제사에 임명되어 용전분투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생을 마쳤다.

이순신은 현직에 있었지만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 이순신의 조부 백록은 조광조 등 젊은 정치가들과 뜻을 함께 하다가 기묘사화때 참변을 당하였고, 부친 역시 관직을 바랄 수 없는 처지였다.[78]

B) 이순신은 1579년(선조9년)에 식년 무과에 급제한 이래 …(중략)… 미관말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79]

C) 정읍현감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순신은 용감하고, 지략이 있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하였다. …(중략)… 그러하건만, 조정에서 추천해 주는 이가 없어서 무과에 급제한지 10년이 되도록 뽑히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정읍현감이 되었다. …(중략)… 그래서 내가 순신을 추천하여 드디어 정읍현감에서 차례를 뛰어넘어 수사에 임용되니 사람들 중에는 그의 갑작스런 승진을 의심하는 이도 있었다.[80]

이상의 사례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이순신은 양반이기는 하나 정치계와는 거리가 있는 주변적 무인으로 자신이 지닌 능력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통치체제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순신의 사회적 지위상의 주변인적인 성격이 그를 민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해 줄 수 있게 하는 근본적 이유인 것이다.

양반이면서도 사대부의 구실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이순신의 처지나 엄격한 계층질서로 인하여 온갖 불합리한 조건을 감내하여야 했던 민중은 서로 동질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81] 그리고, 그 동질적인 유대감은 민중의

78) 소재영, 『임병양난과 문학의식』, 한국학연구원, 1980, p.125.
79) 위의 책, 같은 면.
80) 유성룡, 『징비록』 권1 · 2.

역사인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임진록>에서 이순신의 활약상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문헌 속에 나타난 이순신의 일화를 통하여 민중영웅으로 부각된 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 그가 훈련원봉사에 보직되었을 때 병판 김귀영이 서녀를 첩으로 주려하자 그는 권문에 의탁하여 출세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B) 병조전랑서 서익이 훈련원인 자기 친구를 순서를 뛰어넘어 천거하려하자 이순신은 그때 원중장 무관의 입장에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끝내 그를 원칙적인 자리로 돌아오도록 바로잡는다.
C) 수옥(囚獄)되었을 때 수사가 순신의 조카에게 분에게 패물을 써 방면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반대하여 절조를 지킨다.
D) 형이 요사하고 조카들을 떠맡게 되자 친자식보다 더 잘 돌봐 성취까지 시킨다.[82]

이와 관련해 <임진록>에 서술된 이순신의 성품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자.

공의 천성이 ᄉᆞ름이라도 알미 업스되, 홀노 뉴셩뇽이 어려서붓터 친ᄒᆞᆫ 고로 ᄆᆡ양 공을 일ᄏᆞ라 쟝냑이 잇다ᄒᆞ더라. 병인년의 훈련원에 근ᄉᆞᄒᆞ엿더니, ᄎᆞ시 병판 률곡 션ᄉᆡᆼ이 공의 일홈을 듯고 뉴셩룡을 ᄃᆡᄒᆞ여 보기를 청 ᄒᆞᆫᄃᆡ, 공이 ᄉᆞ양왈, “률곡이 날과 동셩이오, 또ᄒᆞᆫ 쟝ᄌᆡ니 보암즉 ᄒᆞ나 졍관을 보미 불가타.” ᄒᆞ여, 맛참ᄂᆡ 보지 아니ᄒᆞ고, 그 후 병판 김귀영이 또ᄒᆞᆫ 공의 셩명을 듯고 ᄆᆡ파를 인ᄒᆞ여 셔녀로 공의 별실 쥬고져 ᄒᆞ거ᄂᆞᆯ, 공이 즐겨 아니ᄒᆞ여 왈, “ᄂᆡ 엇지 ᄌᆞ최을 권문에 의탁ᄒᆞ리오.” ᄒᆞ고, 듯지 아니ᄒᆞ니라.[83]

이이가 유성룡으로 하여금 보기를 청하자 거절하는 일화 역시 전기의 일화들처럼 원칙과 정도에서 일탈하지 않으려는 이순신의 강직성이 그대로 드러

81) 이재창, 앞의 논문, p.36, 참조.
82) 유성룡, 『징비록』 권2.
83)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경판본>, p.184.

나 있다. 또 좌수사 형백이 사람을 보내어 객사 앞에 선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려다 이순신에게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수사 이용이 이순신을 모함하여 죄를 주려다 오히려 당하게 되는 등의 <임진록> 속의 일화는[84] 그의 기질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임진록>과 문헌에 쓰여진 각각의 일화를 비교해보면, <임진록>에서 옳 곧은 성품으로 묘사된 그의 성품이 실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순신의 품성이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이다.

> 각셜. 잇ᄯᅵ 평안도 샥쥬 ᄯᅵᄒᆡ 한 ᄉᆞ람이 잇스되 승언 니요, 명은 슌신이라. 별호ᄂᆞᆫ 츙무공이라. 부모를 일즉 이별ᄒᆞ고 시년이 이십 셰라. 긔골이 장ᄃᆡᄒᆞ고 힘이 삼천 근을 들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일삼더니, 잇ᄯᅵ를 당ᄒᆞ여 ᄃᆡ희 왈, "시호시호라. 남ᄋᆡ 잇ᄯᅵ를 당ᄒᆞ여 ᄂᆡ의 ᄌᆡ조로 억조창ᄉᆡᆼ을 건지리ᄅᆞ." ᄒᆞ고, 집을 써나 ᄇᆞ다가의 ᄇᆡ뭇기를 힘쓰며 ᄂᆞ라 명을 기ᄃᆞ리ᄃᆡ…[85]

위 글에서 보면 이순신은 이미 칭송받는 그의 훌륭한 성품과 함께 임진왜란을 대비하여 거북선을 만들어 전역에 자원해 나서고 있는 영웅소설의 주인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흑룡록』에서는 이순신이 퇴재상이 되어 있으며 변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거북선을 만들어 싸움에 대비한다. 소설작품에서 보이는 개연성을 부여하여 초인적 능력과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자적 안목을 가진 초인으로 형상되어 있는 것이다.[86]

한편, <권영철본>에는 관운장이 이여송에게 현몽하여 이순신이 천거되어 수군대장이 되며, 김덕령이 그 부하장이 되어 불평하다가 그의 전술능력에 감동하여 이순신을 다시 숭앙하게 만들고 있다.

---

84) <숭전대본> 권3, p.32.
85) 소재영 · 장경남 ,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276.
86) 소재영, 「임진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0, p.131.

여송이 ᄒᆞᆫ 꿈을 꾸니 ᄒᆞᆫ 중군니 와 가로ᄃᆡ, “그ᄂᆞᆫ 날을 엇지 알리요, 나ᄂᆞᆫ 삼국 시졀의 관운중이던니 중군게 통ᄒᆞᆯ 말리 이셔 왓ᄃᆞ. 각도 병ᄂᆞᆫ니 거의 ᄃᆞ 중군의 손의 ᄐᆡ평ᄒᆞ여시ᄃᆡ, 중군의 말이 ᄐᆞ국의와 졍공니 무궁ᄒᆞ오나, 직금 왜졸이 슈젼ᄒᆞ긔을 졍영ᄒᆞ니 슈젼은 쳔만 번 ᄒᆞ여도 ᄃᆞᆼ젹지 못ᄒᆞᆯ 거시니 무슴 이ᄉᆞ을 ᄂᆡᄂᆞᆫ요.” ᄒᆞ거날, 여송이 이려나 두 변 졀ᄒᆞ고 무려 가로ᄃᆡ, “그려ᄒᆞ면 엇지 ᄒᆞ여야 셩공ᄒᆞ릿가. 분명이 가ᄅᆞᆺ치소셔.” 운중이 ᄃᆞᆸ왈, “졀ᄂᆞ도 슌천 쌍의 이슌신니라 ᄒᆞᄂᆞᆫ ᄉᆞ람이이ᄃᆡ, 슈젼ᄒᆞ기난 만고명중이라. 이 ᄉᆞ람을 깁피 불너ᄃᆞ가 슈젼을 먹어라.” ᄒᆞ거날…[87]

이에 대해 최문정은 결국 이순신은 이여송에 의해 등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신의 공은 이여송에 의해 폄하되어 나타난 것으로 우리민족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민중의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88]

그러나 이여송이 수전에서 패배하고 있을 때, 관운장의 현몽을 통하여 순천의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용은 이여송의 꿈에 관운장이 이여송의 능력으로는 왜의 수군에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이순신을 수군대장에 임명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순신은 이여송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지닌 자로 이는 작자나 독자가 이순신의 능력을 부각시켜 그를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으로 드러내어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하기 위한 민중의식이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순신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민중영웅의 죽음이 여러 형태로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이충무공행록』에는 1598년 11월 19일 54세에 남해 하동해협인 노량에서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징비록』에 의하면 이순신이 몸소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가 총알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여 “전방급신물언아사(戰方急愼勿言我死)”의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게 되며 조카가 유언에 따라 그의 죽음을 숨기고 항전하여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으로 되어 있다.[89] 그러나 이러한 전사의 역사적 기록이 <임진록>에

87)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권영철본>, p.444.
88) 최문정, 앞의 책, p.378.
89) 유성룡, 『징비록』 권2.

서는 상당한 변형 양상을 보인다.

한 나라의 원사가 허망하게 총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고전 영웅소설의 전반적인 구성 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말이다. <임진록>에서 이순신을 전사가 아닌 의도적 자살로 구성한 것은 인간 이순신을 영웅에서 성웅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배어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쟁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 李舜臣故中流丸…(중략)…仍此思惟曰 我國素多奸人 有功者害之 多才者傷之 卽今倭賊敗歸 時節平定卽 害我傷我 不知幾箇元均 吾寧死於戰陣 千載血食 不亦快乎 乃免胄脫 甲立於紅頭 大喊督戰 忽中流丸 歸臥帳中 呼兄子莞 授平倭方略 卒于軍中[90]

특이한 점은 전사이긴 하지만 그 죽음이 의도적인 자살이라는 점이다. 행장을 구하러온 침안둔(沈安屯)의 군을 맞아 싸우면서 생각하기를 조선엔 간인이 많아 유공자나 재능이 많은 자를 해치는 서글픈 풍토를 개탄하면서 왜적이 패퇴하고 시절이 평정되더라도 또 몇 사람의 원균이 나를 모함할지 모르니 그럴 바엔 차라리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였다. 그러한 결심이 결국 이순신으로 하여금 갑주를 벗고 강두에 서서 크게 소리치며 독전하다 죽는 "故中流丸(고중류환)"의 표현을 하기에 이르며, 조카 완을 불러 왜적을 평정할 방책을 주고는 군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 다시 슌신을 불러 통제 ᄉᆞ를 식이ᄉᆞ 왜적을 멸ᄒᆞ고 슈륙군ᄃᆡ도독이 되야 ᄃᆡ공을 셰웠스나 죠죵의 당논이 분운ᄒᆞ야셔 ᄯᆞᆨ당뉴는 슌신을 쥬장ᄒᆞ고 동ᄯᆞᆨ당뉴ᄂᆞᆫ 원균을 쥬쟝ᄒᆞᄆᆡ 리슌신은 원ᄅᆡ 류셩룡의 천거로셔 죠졍이 ᄯᆞᆫᄒᆞᆫ 셩룡을 ᄌᆞ죠 의심ᄒᆞ야 류

90) <국립도서관 한문본>, p.34.
이순신이 일부러 날아오는 탄환에 맞았다.… 이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간인이 많아 공이 있는 자는 해하고 재주가 많은 자는 상하게 하여 곧 왜적이 패하여 돌아가 시절이 평정되면 우리를 해쳐서 몇 사람의 원균이 나올지 모른다. 내 차라리 전장에서 죽어 천년동안 피를 마실지라도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에 투구와 갑옷을 벗고 뱃머리에 서서 크게 소리치며 전쟁을 독려하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탄환에 맞았다. 돌아와 장막에 누워 조카 완을 불러 왜적을 평정할 방책을 주고 진중에서 죽었다.

셩룡에 당뉴를ᄌᆞ 죠긔심하ᄆᆡ 리슌신을 나릭ᄒᆞ야 국문ᄒᆞ신 닐이 잇슨 후에 다시 셔용되여 셩공 ᄒᆞ고 감아니 ᄉᆡᆼ각ᄒᆞ되, 'ᄂᆡ가 난시를 당ᄒᆞ여 다행이 ᄃᆡ공을 셰웟스니 일 후에 당논이 근치ᄉᆡ 아니ᄒᆞ면 ᄂᆞᄂᆞᆫ 반다시 고죵명을 못ᄒᆞ리라.' ᄒᆞ고, 한산도 애셔 짐짓 탄환을 마져 죽으니, 그도 ᄯᅩᄒᆞ 쟝ᄒᆞᆫ 닐임으로 시호를 츙무공이라 ᄒᆞ니라.[91]

위 내용을 보면 이순신과 원균이 당파적 성격으로 대조되어 있다. 그 배후엔 동서의 당색이 지배하고 있어, 원균의 모함을 받아 이순신이 수옥 되었다가 다시 서용된 후에는 당쟁의 혐악이 더해져 "일후 당론이 끊이질 아니하며 '考終命(고종명)'을 못하리라"하여 짐짓 탄환을 맞아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국립도서관 한문본>의 "故中流丸"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순신의 죽음은 전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임진록>에서 이를 굳이 자살로 보려는 것은 원균과의 불화를 대조시켜 당쟁의 시각에서 보려는 역사의식에서라고 생각되며, "전수군의 지휘관이 쫓기는 적을 몰아 더구나 갑주도 버린 채 굳이 앞장서서 사지로 뛰어든 그 심경을 자살자의 심정으로 보려는 것이다."[92]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처럼 이순신의 죽음을 <임진록>에서 자살로 설정한 것은 민중이 바라는 진정한 영웅을 그를 통해 표출해 낸 결과이다. 사대부로서 완전치 못한 배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당쟁의 혐악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운 이순신은 현실에서 이미 영웅이며, 그는 민중에 의해 역사의 변조 없이도 <임진록>의 민중영웅이 된 민족의 성웅인 것이다.

4. 역사의 판결 김응서 · 강홍립

역사 속의 김응서(경서)[93]는 김해 사람으로 무장이었다. 무과에 급제하여

91) <흑룡일기>, p.98.
92) 소재영, 앞의 논문, p.135.
93) 김응서는 아명이고 후에 경서로 고쳤다.

1588년(선조21년) 감찰이 되었으나 집안이 미천한 탓으로 파직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된다. 임진왜란 때 별장(別將)으로 명나라 원병장 이여송과 합류하여 평양성을 탈환했고, 뒤이어 경상좌병사가 되어 부산을 탈환할 때 백여 명의 귀순 왜병도 있었다.[94] 광해군 때에는 후금을 토벌하기 위해 강홍립의 부원사로 출정하였다가 강홍립의 항복으로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적정을 기록하여 본국에 보내려 하다가 강홍립의 고발에 의해 사형되었다.

『이계집』에서 보면 김응서는 경서의 초명으로 신라 김유신의 후예이며 용강인으로 어려서부터 기력이 빼어나고 병술에 뛰어나 절충장군에 이른다. 임진왜란시 부친상을 당하여 있다가 왜장이 평양을 점거하자 기복출사(起復出仕)하여 패수에 주둔하여 있었는데, 김응서가 월선과 적장을 죽이고 나올 때 따르려고 하는 월선을 발각될까 두려워 베어 버리고 성을 뛰어 넘는다.[95]

<임진록>에서 김응서는 미천한 존재였다. 그는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지극히 섬기며 매일 나무를 하며 생활해 가는 숨어 있는 존재이나 맨손으로 범을 잡을 정도로 대단한 용력을 지니고 있다.[96]

> 잇쩍, 응셔 나히 이십 셰라. 신장이 구 척이요, 얼골은 관옥갓고 눈은 홰불갓고, 삼천 근 적금투고를 쓰고 빅 근 철갑을 닙고 칠 척 유셩창을 드러시니 일쩍 영웅이라.[97]

김응서는 <경판본>에서는 이원익의 천거로 <국립도서관본>에서는 최일경의 천거로 부친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전복을 입고 집을 나와 그 용력을 발휘하게 된다. 최일경의 묘책으로 월선의 도움을 받아 왜장 살해에 성공하는데, 김응서는 월선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

94) 이홍식, 『국사대사전』, 백만사, 1975 참조.
95) 홍양호, 『이계집』 참조. (이 기록은 왜장살해의 공을 김응서의 일방적 공과로 기술하고 있다.)
96) 소재영 · 장경남 , 앞의 책, <경판본>, p.82.
97)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296.

"나는 조선 장슈 김응셔라 ᄒᆞ나이다. 슬푸다, 우리 왕의 명을 바다 오날 밤의 ᄃᆡ ᄉᆞ을 도모코져 왓스니, 네 비록 계집이나 모진 목슘이 쥭지 못ᄒᆞ고 지금 조셥을 밧드나 분한 마음이야 일반이라. 억만 군병 장창ᄃᆡ극 즁의 드러 오기는 너만 밋고 왓스니, 네의 뜻지 엇더ᄒᆞ뇨."[98]

이에 월선은 조셥을 인사불성으로 취하게 하여 그의 목을 베도록 도와준다.그러나 왜장살해 성공의 은인인 월선도 김응서로 인해 죽게 된다.

응셔 ᄃᆡ희ᄒᆞ야 월선을 밧게로 불너 왈, "너의 충졀은 만고의 업도다. 지금 초산의 모진 범을 잡아씨나, 슬푸다, 네 일ᄀᆡ 아녀ᄌᆞ로 당시 영웅을 쥭겨스니, 너을 두면 일후 셩ᄉᆞᄒᆞ기 어렵도다. 네 츙졀은 후셰예 발킬 거시니, 또 쥭은 고흔이라도 나을 원망치 말나." ᄒᆞ고, 언파의 월선의 목을 베혀 들보의 언고,[99]

김응서가 조셥을 죽인 것은 기녀 월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국립도서관본>에서는 특히 월선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증보되어 있다. 김응서에게 죽임을 당한 조셥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김응서의 무용이 한층 강조되는 것이 <경판본>과 같은 역사계열의 김응서 이야기의 내용이라면, <국립도서관본>과 <권영철본>에서는 기녀 월선 활약이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만큼 월선의 죽음이 한층 처참한 것으로 각인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왜장 살해의 공은 크나 월선을 살해하는 행위는 충의를 위해 은혜를 저버린 인물로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100] 그러나 왜장살해 이야기에 이어지는 왜국정벌 이야기에서 김응서는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함과 동료의 변절에 통탄하며 강홍립을 처단하고 자결했기 때문에 강홍립과 대비되어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역사 속의 강홍립은 조선 중기의 장군으로 우의정 사상의 손자로 1579년

98)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06.
99)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10.
100) 월선의 죽임에 대한 내용은 후 Ⅲ-2-4)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선조3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강홍립은 임진왜란시에 활약했다는 기록은 없고, 1618년(광해군 10년)에 명에서 후금을 토벌할 때 명의 요청으로 원병을 보내게 되어 도원수로서 부원수인 김응서와 함께 일만 여 명을 거느리고 출정했다가 항복하여 흥경으로 붙잡혀 갔다는 기록이 전한다. 처음부터 명나라에 대한 체면상 할 수 없이 출병한 것인데 광해군이 명나라가 패배할 것을 짐작하고 강홍립에 형세를 보아 적당히 향배를 정하도록 시켰다는 말이 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적군의 선도를 맡았고 후금의 사신으로 강화에서 화의를 주선한 일도 있다. 난후 국내에 남게 된 강홍립이 역신인지 충신이지를 따지는 격론이 벌어지고 마침내 역신으로 규정되자 단식하여 죽었다.[101]

<임진록>에 나타난 강홍립은 제주의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였다. 작품에서 그는 한 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아 대호장군이라 불려진다. 그는 전란이 일어나자 병사를 동원하여 함께 대해를 건너 적장들을 베고 전세를 승리로 이끄는 장군으로 되어 있다. 그의 활약상을 보면 제주 성중에 찾아가 군사를 얻어 바다를 건너 왜적과 접전하고 경성으로 향하여 가서, 의주에서 왕을 배알하고 이여송과 함께 왜적을 격퇴시킨다. 그 후 전란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전공이 컸던 무장 김응서 · 강홍립에게 관작을 후하게 내린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두 무장이 자원하여 임진왜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또는 왜의 재침을 막기 위해 왜국정벌에 나설 것을 말한다.

> 이ᄯᅢ 김응서 강홍닙이 혀오ᄃᆡ, 당금 일본이 강승ᄒᆞ야 임진년 ᄯᅢᆺ을 보고 ᄯᅩ 긔병ᄒᆞ고져 ᄒᆞ는지라. …(중략)… 응서 홍닙이 복지 쥬왈, "불원 젼하ᄂᆞᆫ 명장 이ᄇᆡ 원을 쥬옵시면, 소장 등이 왜국의 드러가 왜황을 ᄉᆡᆼ금ᄒᆞ와 항셔ᄅᆞᆯ 밧고, 일후 다시 환니업게 ᄒᆞ오리다."[102]

강홍립이 왜의 정벌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는 왜국정벌담은 실제 존재한 역

101) 이명선, 『임진록 해설』, 국제문화사, 1948 참조.
102) 소재영 · 장경남 ,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p.348~350.

사적 사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립도서관 한문본>과 <권영철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03]

1. 김응서와 강홍립은 논공행상에서 선조로부터 받은 과분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왜를 정벌하겠다고 건의하여 허락을 얻다.
2. 출전할 때 강홍립을 선봉장, 김응서로 후군장을 삼아 출전시키다.
3. 동래에서 승선할 때 3일만 유진했다가 출전하라는 신인의 계시가 두 차례에 걸쳐 김응서에게 내렸지만, 선봉장 강홍립에 의해 거절당하여 할 수 없이 승선하여 출전하다.
4. 이 때 왜왕은 천기를 보고 조선군이 침입해오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동설령에 매복시키며 3일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으면 철수하라고 지시하다.
5. 강홍립이 동설령 밑에 도착하여 지친 군사들을 쉬게 했다가 넘자는 김응서의 건의를 무시하고 그냥 동설령을 넘다가 왜의 복병을 만나 전군이 함몰당하고 강홍립과 김응서만 살아 남게 되다.
6. 왜왕이 다시 장수와 군사를 보내어 강홍립과 김응서를 잡게 했지만, 김응서는 대적할 수 없다고 겁을 먹는 강홍립을 질책하고 혼자 나가서 왜장들을 죽이다.
7. 왜왕이 무예는 두 장수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 장수를 회유하기 위해 미인계를 쓰자 강홍립은 훼절하고 김응서도 할 수 없어 후일을 기약하고는 응하다.
8. 3년이 지난 다음에 김응서가 강홍립에게 왜왕을 죽이고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강홍립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왜왕을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며 왜왕에게 김응서를 고변하다.
9. 왜왕은 노하여 김응서를 잡아다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질책하자 김응서도 이에 맞서 왜왕의 무도한 행위를 질책하다.
10. 김응서는 옆에 있는 강홍립을 죽인 다음 왜왕을 죽이려 하자 왜왕이 도망하는 바람에 죽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자세한 내력을 편지로 써서 타던 말에 주고 자살하다.
11. 김응서의 말이 김응서의 목과 편지를 물고 조선의 본가로 가져다주니 부인이 보고 사연을 선조에게 알리다.

---

103) <임진록>의 모든 이본에서의 일본정벌 이야기는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다.

12. 김응서가 선조에게 현몽하여 자세한 내력을 알리자 선조는 김응서의 충절을 칭찬하고 전장에서 죽은 고혼들을 위로하다.
13. 왜왕은 조선의 맹장이 죽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조선 재침을 기도하다.[104]

역사적 실제 사건이 아닌 일본정벌담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라기보다는 병자호란 때의 두 장수의 인물상이 투영되어 있다. 병자호란 때의 역사적 상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명이 후금을 토벌하려 했을 때, 명 측은 임진왜란 때에 구원병을 보내 원조한 옛 은혜를 거론하며 조선의 출병을 요청해왔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임명하고 명군을 원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호루호산에서 노루하치의 대군과 접전하여 패배한다. 그 때 부장인 김응하와 예종 등은 최후까지 응전할 것을 주장하고 전사하지만, 강홍립과 김경서는 적진과 밀통하고 조선의 출병은 명으로부터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었음을 표명하고 후금에 투항해 버린다.

실제로 강홍립의 투항은 출전에 앞서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는 당시의 임금인 광해군의 밀지에 따랐던 것이었다. 하지만 청군은 투항해 온 조선군 장수 몇 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병사들을 죽이고, 강홍립은 동이의 장수 귀영개의 양녀와 결혼하여 오백여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호군의 선봉으로 조선에 입국하게 된다. 반면에 김경서는 함께 잡혔으면서도 몰래 일기를 써서 적의 정세를 기록하여 본국에 보내고 동이의 추장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세우던 중 강홍립에게 발각되어 처형당하고 만다.[105]

강홍립의 투항행위는 비록 광해군의 밀지를 받았다고는 하나 명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며, 후일에 조선에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조선 민족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강홍립의 투항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최후까지 싸우다 죽어간 김응하와 김경서의 충절에 비해 강홍립의 투항에는 부정적인

104) 최문정, 앞의 책, pp.130~131.
105) 이명선, 앞의 책, 참조.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더욱이 정묘호란 때 오랑캐들의 앞잡이가 되어 조국을 침략해 온 사건은 <임진록>에서 강홍립을 민족의 반역자로 강하게 부각시키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듯하다.

이처럼 역사에서 강홍립은 이미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찍힌 부정적 인물이었다. 이는 <임진록>에서 해신의 교시가 선봉장인 강홍립이 아닌 김응서에게 내려진 것과 김응서의 건의를 귀담아 듣지 않고 독선을 부리는 강홍립의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 "나는 됴션에 의탁ᄒᆞ여 머무는 어득광이라 ᄒᆞ는 귀신이라, 맛춤 장군의 운슈를 숣핀즉 힝군를 셔셔히 ᄒᆞ여야 반다시 셩공ᄒᆞ리라." ᄒᆞ고, 간 ᄃᆡ 업거늘, 응셰 괴히 여겨 군을 머무르고, 홍닙을 쳥ᄒᆞ여 귀신의 말을 젼ᄒᆞ고 군즁의 무양ᄒᆞ믈 무르니, 홍닙 왈, "ᄃᆡᄉᆞ의는 젹은 거슬 도라보지 아니ᄒᆞᄂᆞ니, 엇지 범ᄉᆞᄒᆞᆫ 말노 ᄃᆡ군을 머믈이오." ᄒᆞ고, 북을 울녀 힝군을 지촉ᄒᆞ니, 또 그 귀신이 응셔의 진 뒤ᄒᆡ셔 통곡 왈, "장군이 병법을 모르ᄂᆞ도다. 병셔의 왈, '쳔신이 쥬이동이라도 여불헌진취라' ᄒᆞ니, 나는 군즁 쥬장이오, 그ᄃᆡ는 아장이라. 엇지 ᄂᆡ 말을 듯지 아리이오. 만일 다시 말ᄒᆞ미 잇스면 군법시 힝ᄒᆞ리라."[106]

또, 김응서가 죽자 그의 머리를 그의 애마가 물고 바다를 건너 용강 땅 그의 아내에게 갖다 바치니, 조선왕은 김응서를 위해 제문을 지어 위로하며 부인에게 정열부인에 봉하고, 강홍립의 배반은 삼족을 멸하여 엄히 다스린다는 처벌에서도 두 인물에 대한 민중의 판결이 드러난다. 결국 김응서와 강홍립의 변절과 절의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의 역신 강홍립을 김응서와 함께 등장시켜 김응서를 민중의 영웅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변절자에 대한 강한 반감과 그러한 인물이 어떠한 결말을 맞아야 하는지 판결을 내리고 있다. 김응서와 강홍립의 이야기에서 민중은 냉엄한 역사 평가를 내림으로써 국난을 거치며 성장된 역사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

106)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경판본>, p.228.

5. 전란의 종결자 사명당

<임진록>에서 사명당은 김덕령만큼이나 허구화가 많이 된 인물로 사명당은 영웅 중의 영웅으로 설정되지만 이순신처럼 모든 이본에 등장되진 않는다. 그러나 사명당의 정왜담이 등장하는 이본에서는 사명당을 임진왜란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설정해 놓았다.

역사 속의 사명당의 세속의 이름은 임유정, 자는 이환이라 하고 호는 송운이며 사명은 자호이다. 13세 때 류촌에게 글을 배웠는데, 이때 속학의 천루함에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32세 때 묘향산에 들어가 청허신사(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어 수도에 전념했다. 43세 되던 봄에 옥주 상동암에서 무상의 법을 깨달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사명당은 49세로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다. 서산대사의 천거로 서산대사의 승인을 받아 의승군부대장이 되어 2천여의 승군을 이끌고 적정탐지 등 활약을 하다가 이듬해 50세가 되던 해에는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공격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60세에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수신사로 건너가 덕천가강을 만나 강화를 맺고 잡힌 포로 3천여 명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67세 되던 해 8월 26일 대중을 모아 놓고 설법하고는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7년에 걸친 전쟁 후 사람들에게 가장 근심스러웠던 일은 일본의 재침 위협이었다. 종전 후 일본이 조선에 다시 통상교섭을 요구하고 나서 조정에서 근심스럽게 여겼는데 사명당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사신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떠났다. 그런데 일본에 간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던 사명당이 1년이 지난 어느 날 일본과의 강화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또 잡혀갔던 포로 삼천 오백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107] 이러한 역사적 실제 활동이 왜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얻어낸 <임진록> 결말의 영웅으로서 사명당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것

107) 『사명당집』 행적 3장 참조.

은 초자연적인 도술인 바, 불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승려 사명당과 도술은 쉽게 합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술자가 도술로써 왜왕의 항서를 받아내는 인물로 사명당을 설정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와 연관 지어 생각할 때도 적절하다.

<임진록>에서의 왜국 출정담은 꾸며진 이야기이다. 사명당의 왜국 출정담은 역사적 사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도술을 지닌 비범한 승려 영웅으로 사명당을 등장 시킨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임진록>의 사명당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사명당이 서산대사의 천거와 선조의 명을 받고 왜의 재침을 막기 위해 왜국에 간다.
B) 사명당이 중이라고 멸시하는 동래 부사를 참한다.
C) 사명당이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왜왕의 항복을 받는다.
D) 사명당이 선조가 내려주는 벼슬과 금화를 사양하고 떠난다.

먼저, 사명당을 천거하는 이유와 신이한 능력으로 왜왕을 항복시키는 과정이 매우 큰 비중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소승은 평안도 영평 낙산사 즁이옵더니, 셕가여릐 하교ᄒᆞ시되, '일본이 다시 긔병ᄒᆞ니 국ᄉᆞ 위틔ᄒᆞᆫ지라.' 소승으로 일본의 드러가 항복바다 오라, ᄒᆞ기로 연유을 알외ᄂᆞ이다." 젼하 ᄃᆡ경ᄒᆞᄉᆞ 가라사ᄃᆡ, "네 비록 즁이나 ᄯᅩ한 ᄂᆡ의 신민이라. 일본의 드러가 발병치 못ᄒᆞ게 ᄒᆞ고, 항셔를 바다 ᄂᆡ의 근심얼 덜게 ᄒᆞ라." ᄃᆡᄉᆞ 엿ᄌᆞ오ᄃᆡ, "소승은 나히 팔십이라 근력이 부족하오니, 소승의 상ᄌᆞ ᄉᆞ명이 잇스오니 속히 즁지에 보ᄂᆡ옴 즉, 젼하의 근심을 들가 ᄒᆞ니이다."[108]

"소승이 천기를 보오니 왜놈이 임진년 원수를 생각하고 조선을 침노코자 하기로 …." …(중략)… "이제 김응서 강홍립은 다 죽삽고, 다른 장수 없사오니 뉘라서 왜

108)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368.

놈을 당하리이까. 소승의 상좌 사명당이라 하는 중이 있으되, 육도삼략을 통달하옵고 팔만대장경과 둔갑정신 지술이 능통하오니….”[109]

여기에서 석가여래의 명을 받은 관음불이 서산대사에게 현몽하여 사명당을 천거하고 있고, 왜왕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장수가 조선에는 이제 없고 오직 도술에 능통한 사명당만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명당 이야기의 절정은 왜왕의 음모와 이를 도술로 이겨내는 사명당의 생불다운 면모가 명실상부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조션 ᄉᆡᆼ불이 온다 ᄒᆞ니 한 게교 잇ᄉᆞ오니, 조션 ᄉᆞ신 오ᄂᆞᆫ 길의 일만 팔천구ᄇᆡ장 병풍을 일만팔천구십 ᄌᆞ 시문을 써 부치고 외오라 ᄒᆞ여, …(중략)… [110]

“남문 박게 한 모시 잇스되 깁기 만여 장이라. ᄃᆡ연을 ᄇᆡ셜ᄒᆞ고 구리쇠로 쳔 근 방 셕을 민드러 쥬며 ᄉᆡᆼ불아려 ‘져 방셕을 타고 져 물 우에 션유ᄒᆞ라’ 만일 시ᄒᆡᆼ치 아니 ᄒᆞ면 엇지 살기를 바라리요.”[111]

“한 모게 잇ᄉᆞ오니 구리쇠로 가둘 옥을 민들고 ᄉᆞ명을 방의 안치고, 문을 봉ᄒᆞᆫ 후 숫불을 노코 ᄃᆡ풍 고을 불면 졔가 아모리 ᄉᆡᆼ불이라도 쎄가 녹으리이다.” 왜황이 올히 역여, 구리쇠로 집을 짓고 ᄉᆞ명을 쳐소을 졍ᄒᆞ고 문을 봉ᄒᆞ고 숫쳘 ᄊᆞ코 ᄃᆡ풍 고 을 불거날, ᄉᆞ명이 구리 방셕의 어름 빙ᄊᆞ을 쓰고, 벽의ᄂᆞᆫ 눈 셜ᄊᆞ을 씨고, 단졍이 안ᄌᆞ 팔만ᄃᆡ장경을 외오니 좌셕이 셔늘ᄒᆞ더라.[112]

“송당의 판 못시 잇스되 깁기 오십 장이오니, 송당의 뉴리방셕를 씌오고 방셕의 안 즈라 ᄒᆞ오명 일졍 진가를 아오리이다.”[113]

---

109) 『흑용록』, p.42.
110)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370.
111)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72.
112)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74.
113) 위의 책, <경판본>, p.250.

"ᄉᆞ셰 급ᄒᆞ엿ᄉᆞ오니 무쇠로 말을 민드러 풀무로 다른 후의, ᄉᆞ명당을 청ᄒᆞ여 '그 말ᄅᆞᆯ타라.' ᄒᆞ면 ᄉᆞ명당이 비록 싱불이나 의심ᄒᆞ리잇가."[114]

왜왕의 음모와 이를 도력으로 이겨내는 구조 가운데 사명당의 생불다운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왜왕의 시험 대목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경판본>에서 무쇠 말을 달구어 타게 하는 왜왕의 시험에서 불에 달군 철마를 대하자 서해용왕의 편지를 쥐고 향산에 사배하니, 이때 서산대사가 손톱에 물을 묻혀 동을 향하여 세 번 뿌리니, 큰 비와 얼음덩이 내려와 일본이 거의 바다가 되매 왜왕이 급히 항서를 올린다. 이 때 처음에는 왜왕의 머리를 올리라 했다가 다음엔 매년 인피 삼백 장씩 봉상하라 했다가 마지막으로 삼백 명씩 관에 수자리를 살리게 하고 형제지국의 의를 맺고 피로인 천여 명을 데리고 오다가 일본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 다수를 내려놓고 돌아온다.[115]

사명이 ᄂᆡᆼ소ᄒᆞ고 셔으로 조션을 향하야 ᄉᆞ빅ᄒᆞ고 침 셰 번을 밧트니, 셔흐로 일졈 흑운이 써오며 슌식간의 천지가 뒤놉고 벽역소ᄅᆡ ᄉᆞ람의 졍신을 놀ᄅᆞ게 ᄒᆞ며, 급한비 담아 붓덧ᄒᆞ야 바다히 창일ᄒᆞ여 왜국 장안이 거의 ᄒᆡ즁의 뭇칠 ᄯᆞᆺᄒᆞ더라.[116]

또, 이처럼 왜왕의 이 모든 시험을 도술로 물리친 사명당이 사신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조선은 사해용왕 보살핌을 받는 나라로 왜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이 보살피는 민족임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서술자는 이러한 사명당의 생불다운 면모와 도술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왜왕을 굴복시키는 과정과 사해용왕이 조선을 보살핀다는 설정을 통

114) 위의 책, <경판본>, p.254.
115) 위의 책, <경판본>, pp.254~263,
116)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76.

해 민중들의 선민의식과 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드러내어 임진왜란으로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명당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승려라는 그의 신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명당의 행적에서 볼 때 사명당은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승려이지만 신민의 입장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병한 인물이다. 그러나 사명당의 공로는 승려라는 그의 신분으로 인해 위정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실제적 처사는 <임진록>에서 임금의 명을 받고, 왜국으로 향하던 중 승려라 하여 무시하는 동래부사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 여러ᄂᆞ만의 동ᄂᆡ의 다다르니, 부ᄉᆞ 송강이 이르되, "ᄃᆡ원슈 비록 즁임이나 본ᄃᆡ 즁이니, ᄂᆡ 디 후ᄒᆞ며 제게 공장을 드리이오." ᄒᆞ고, 다만 관속으로 ᄒᆞ여금 졉ᄃᆡᄒᆞ라 ᄒᆞ니, 관속 등이 제 원의 눈치를 보고 공궤 졉ᄃᆡ를 잘못ᄒᆞ여 군병이 ᄐᆡ반이나 굴멋ᄂᆞᆫ지라.[117]

> 동ᄂᆡ의 다다르니 부ᄉᆞ 셔운덕이 즁이라 ᄒᆞ고 능멸이 알아 층병불츌ᄒᆞ거날, ᄉᆞ명이 ᄃᆡ로왈, "어명을 바다 말니 ᄒᆡ도의 가거날, 네라셔 나를 업수이 넉이니, 나라를 위ᄒᆞ미 아니라." ᄒᆞ고, 머리를 버혀 회시ᄒᆞ고,[118]

동래부사는 사대부 계층으로 정작 국난의 위기에서 앞장 서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명당을 천한 신분인 승려라는 이유로 멸시하여 수모를 주고 있음을 서술자가 동래부사의 무례한 행위로 표현해낸 것이다. 이러한 위정자들을 향한 민중감정은 지봉 이수광이 지었다는 당시 떠돌던 노래에서도 확인된다.

> 조정에 원로대신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

117) 위의 책, <경판본>), p.248.
118)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370.

나라의 안위를 모두 한 사람의 스님에게만 맡겨버렸네.[119]

또, 왜국으로 나가는 길에 동래부사가 행했던 무례한 행위는 사명당이 왜왕의 항서를 받고 귀국하는 부분에서 되풀이되는데, 결국엔 동래부사를 처단함으로써 위정자들의 비열상을 비난하고, 미천한 신분일지라도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사명당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영웅임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ᄂᆡ 드러 갈ᄯᅢ 네 거힝 불션ᄒᆞ믈 ᄃᆡ강 경계만 ᄒᆞ엿더니, ᄂᆡ 이제 도라오ᄆᆡ 그 방ᄌᆞ 교만ᄒᆞ믈 오히려 곳치지 아니ᄒᆞ고 더욱 완악ᄒᆞ여 지경 나지 아니ᄒᆞ니, 너갓튼 뉴ᄅᆞᆯ 쥭여 타인을 징계ᄒᆞ리라." ᄒᆞ고, 도부슈ᄅᆞᆯ 명ᄒᆞ여 송강을 참ᄒᆞ고[120]

이처럼 서술자는 사명당을 능력과는 별개로 승려라 하여 신분의 낮음만을 트집잡는 사대부의 태도에서 위정자와 사대부 계층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승려 사명당이 전란을 완전히 종결지으며 왜국정벌을 성공리에 수행했다는 점에서 민중의 주체적 역사창조의 사회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6. 변화하는 여성상 논개 · 월선 · 화월

<임진록>의 초기 본, 즉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한 이본 군에는 여성담이 거의 없고, 김응서에게 조력한 기녀의 이야기가 실려 있긴 하지만 여성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여성담이 증가되고 이야기 속에서 그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역사의 실제인물인 논개의 성은 주씨이며 신안사람이다. 아버지는 달문인

119) 김영태, 「임진구국의 승장들」, 『현대불교신서』 17, 동국대학교 불전위원회, 1979, p.147,
盛世多名將 奇功獨老師 莫道廟堂三老在 安危都付一僧歸
120)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경판본>, p.262.

데 학식이 높아 장수현 계내리 주촌마을 훈장이 되었고 어머니는 안의현 명문 밀양 박씨였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의 손에서 자라서 민며느리로 팔려 갈려다 어머니에 의해 구출되어 이른바 논개송사가 발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당시 현감이던 최경회와 알게 되어 그의 측실이 된다.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진주성에서 최경회가 순사하자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는데 왜적이 전승연을 베푸는 데 기녀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단장하여 기녀로 위장하고 들어가 청정의 부장 모곡과 더불어 놀다가 모곡을 안고 강에 투신하여 동사하였다.[121]

역사적으로 사대부의 측실이었던 논개는 <임진록>에서는 기생으로 등장하여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장을 안고 자결한다. 논개는 진주에 사는 유명한 기생으로 <경판본>과 <권영철본>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투신하여 우국충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ᄂᆡ 비록 쳔기나 엇지 도적의게 몸을 데레리오.’ ᄒᆞ고, ᄒᆞᆫ 계교를 ᄉᆡᆼ각ᄒᆞ여 적쟝을 속여 왈, “져 강슈의 바회 ᄭᆞᆺ히셔 두리 ᄃᆡ무ᄒᆞᆫ 후의 장군을 조치리라.” ᄒᆞ니, 적쟝이 허락ᄒᆞ고 논ᄀᆡ 적쟝의 허리을 안고 물의 ᄯᅮ여드니, 표묘ᄒᆞᆫ 강슈의 냥인의 간 바를 모를너라. 적쟝이 임의 죽어스ᄆᆡ 적병이 셩을 바리고 도라가니, 일노 뼈 진쥬를 회복 ᄒᆞ니라. ᄃᆡ져 논ᄀᆡ 비록 쳔기나 강ᄀᆡᄒᆞᆫ 마음과 민쳐ᄒᆞᆫ 지혜를 고의게 비ᄒᆞᄆᆡ 족히 붓그럽지 아니ᄒᆞ니, 후인이 그 바회의 삭이되, ‘일ᄃᆡ쟝강이오, 쳔추의렬이라’ ᄒᆞ니라.[122]

<임진록>에서는 왜장이 죽음으로 왜군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 이 일로 진주성을 회복했다고 역사적 사실을 변형하여 과장되게 서술함으로써 논개의 활약상을 더욱 부각시켜 놓았다.

---

121) 논개송사를 통하여 논개의 생애를 밝힌 김상조, 「의랑주논개의 행장」, 회소제문고 권3, 금호출판사, 1982 참조.
122) 위의 책, <경판본>, pp.192~194.

바람이 포포ᄒᆞ니 츔츄난 소ᄆᆡ을 흔든난또ᄃᆞ
강산이 변히여시ᄆᆡ ᄀᆡ갓튼 오랑키난 만고의 원슈로ᄃᆞ
살푸ᄃᆞ 국가의 여군운이 이리된니
ᄂᆡ ᄉᆞᄅᆞ 무엇ᄒᆞ리요

ᄒᆞ며, 츔츄기을 질기ᄒᆞ며 왜중과 ᄒᆞᆫ가지로 츔 츋든이, 왜중이 ᄃᆡ취ᄒᆞ여 질기물 이기지 못ᄒᆞ여 서로 소ᄆᆡ을 잡고 이역키 츔츄며 뒤흐로 물너나간이, 물의 논ᄀᆡ ᄒᆞᆫ가지로 나가든니 논ᄀᆡ나가 왜중의 허리을 안고 누ᄒᆞ 강물의 ᄂᆞ려진이, 왜중이 물썰을 혓씨고 셰 변 소ᄉᆞ 나오려 ᄒᆞᆫ이, 논ᄀᆡ 두 손으로 왜중의 허리을 안고 놋치 아니ᄒᆞᆫ이 할 일 업셔 물ᄋᆡ 빠져 쥭근지라.[123]

위 노래는 계사년에 진주성이 함락되자 논개가 왜장을 안고 죽기 전에 부른 것이다. 이 노래는 논개가 죽는 장면을 한층 더 미화시켜 그녀의 죽음을 영웅적 행위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개의 정조와 우국충정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삶에 크게 집착하지 않은 대범한 모습은 계월향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김응서가 기녀의 도움을 받아 왜장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문헌과 구비전승설화, 그리고 <임진록>의 거의 모든 작품 군에 실려 있으나, 각 이본 군에 따라 이름과 그 내용이 다양하게 변이되어 있다. <국립도서관 한문본>에서 <숭전대본>을 거쳐 <경판본>으로 갈수록 김응서에게 죽임을 당한 왜장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강조되고, 김응서를 도와 왜장을 죽이는데 일조한 기녀 월선의 재기 넘치는 활약과 역할이 점점 부각되어 간다. 이러한 경향은 군담화된 후기 본으로 갈수록 더 강해져, 김응서를 도와준 기녀의 재치와 그 역할이 부각되어 왜장 살해의 성공은 기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만큼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임진왜란 중 왜적이 평양성을 함락하자 평양성 탈환을 목적으로 김응서가 계월향의 도움으로 왜장을 살해하여 평양성 탈환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구

123) 위의 책, <권영철본>, p.390.

비설화로 현재까지 전해지지만 계월향에 대한 자세한 사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연려실기술에 실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평양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을 뿐이다.[124]

이때 왜장의 부장에 용력이 절등한 사람이 있으니 언제나 앞장서서 진을 함락시켜 행장이 소중히 여기고 일을 맡겼다. 평양기생 계월향이 그에게 잡힌바 되어 지극히 사랑을 받아 벗어나려 해도 되지못하였다. 서문에 가서 친척을 보고 오겠다 하니 왜장이 허락하였다. 계월향이 성위에 올라 '우리 오빠 어디 있소.' 하고 연거푸 슬피 부르기를 마지않았다. 응서가 대답하고 나간 즉 계월향의 말이 '만약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면 죽기로 은혜를 갚겠소.' 하니 응서가 허락하고 계월향의 친오빠라 자칭하고 성에 들어갔다. 밤중에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계월향이 응서를 인도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왜장이 걸상에 앉아서 자는 데 두 눈을 부릅뜬 채 쌍검을 쥐고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을 내리칠 것 같았다. 응서가 칼을 빼어 왜장을 베니 머리는 벌써 땅에 떨어졌는데도 칼을 던져 하나는 벽에 꽂히고 하나는 기둥에 꽂혀 칼날이 반이나 들어갔다. 응서가 왜장의 머리를 차고 문을 뛰쳐나오니 계월향이 뒤를 따랐다. 응서가 둘 다 보전하기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칼을 휘둘려 계월향을 베고 한 몸으로 성을 넘어 왔다. 이튿날 새벽에 적이 그 장수의 죽음을 알고 크게 놀라 소동하고 사기를 잃었다.[125]

이러한 내용은 그 양상을 조금 달리하지만『이계집』에도 보인다.

副元帥金將軍景瑞傳에 云金將軍景瑞는 初名應瑞니 新羅名將庾信之後也라 中世에 住居龍岡하니라 生而兩腋에 有異骨如鳥翊하야 勇能超屋이더라 及長에 好讀書孫吳書하고 習騎謝러니 宣祖癸未 登武科하야 授邊職하야 築城坊하다 故로 以勞로 陞折衝이러니 遭父喪去하니라 壬辰에 倭大擧入寇하니 奉駕幸龍灣하고 倭長驅平壤이라 上이 聞景瑞名하고 起復爲別將하야 師龍岡江西三和甑山四邑兵하고 屯浿西水하니라 倭將據城者 驍勇無敵하고 嬖俯妓桂月香이라 景瑞陽稱其親屬하고 夜入日營하야 劍斬其將하야 佩其首出帳할새 妓挽衣欲隨之어늘 景瑞恐被覺하야 揮斬妓하고 跳出城

124) 문형준, 앞의 논문, p.43.
125) 국역 연려실기술 4권, pp.77~78.

하니라[126]

위의 평양지에서는 계월향이 주체가 되어 거사를 도모하고 실행하지만『이계집』에서는 김응서가 주체가 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계월향 이야기는 <임진록>에서 변이되어 부각되어 진다.<국립도서관본>에서 역사적 인물 계월향은 월선으로 등장한다. <국립도서관본>에서는 <숭전대본>에 비해[127] 월선의 행위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김응서가 최일경의 명으로 왜장 조섭을 죽이러 간다. 월선의 지시대로 육정육갑을 외우고, 월선이 방울구멍을 막고, 응서가 진언을 외고 침을 세 번 뱉어 결국 조섭을 살해한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김응서는 월선이 영웅을 죽였다 하여 월선을 죽인다.

> 응서 ᄃᆡ희ᄒᆞ야 월선을 밧게로 불너 왈, "너의 충졀은 만고의 업도다. 지금 초산의 모진 범을 잡아씨나, 슬푸다, 네 일ᄀᆡ 아녀ᄌᆞ로 당시 영웅을 쥭겨스니, 너을 두면 일후 셩ᄉᆞᄒᆞ기 어렵도다. 네 츙졀은 후세에 발킬 거시니, 또 쥭은 고혼이라도 나을 원망치 말나."[128]

자신을 원망치 말라하고 월선을 죽이고 탈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를

---

126) 이능화,『조선선어화사』, 한남서림, 1927, p.134.
「부원수 김장군경서전」에 장군 김경서는 처음 이름이 응서였다. 신라의 명장인 김유신의 후예다. 중세에는 용강에 거주하였다. 태어날 때에 양쪽 겨드랑이에 새 날개와 같은 이상한 뼈가 있었는데 용맹하여 능히 집을 넘었다. 장년이 되어서 손오이 글을 읽기를 좋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선조 계미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변방의 직분을 제수 받고, 성의 둑을 쌓은 공로로 절충에 승진되었는데 아버지의 상을 당해 떠났다. 임진년에 왜적이 크게 쳐들어오자 용만으로 행차하는 임금의 수레를 받들고 왜 장수가 평양으로 말을 달려왔다. 임금이 경서의 이름을 듣고 별장으로 복귀시키고 용강 강서 삼화서읍병대의 수장으로 삼고 폐수의 서쪽에 진을 쳤다. 왜 장수 중에 성을 점거한 자가 날래고 용맹스러워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관기 계월향을 총애하였다. 경서 이에 계월향의 오빠라 명칭하고 밤에 군영에 들어가 왜 장수를 검으로 베고 머리를 차고 군막을 나올 때 계월이 못을 잡아당기며 따라가고자 하였다. 경서가 발각될까 두려워 계월을 베고 성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127) <숭전대본>과 <경판본>에서의 기녀는 이름도 명시되지 않는 천물로 서술되어지고 있으며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김응서의 인간성을 부각시키는 보조역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

128) 소재영 · 장경남 ,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310.

작품 속에서 찾아보긴 힘들다.

한편, <권영철본>에서는 계월향이 화월로 등장하고 상대역도 김응서 대신 김덕령으로 나타난다. <권영철본>에서 화월은 탁월한 지모를 가지고 등장하여 그 지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A) 김덕령이 이여송의 명을 받아 왜장 조서비를 살해하러 간다.
B) 예전 감사의 비장이던 김덕령이 그의 수청기생 화월을 찾아 간다.
C) 화월 모 츈기에게 화월을 보러 왔다 하고 기다려 츈기가 알리지만 화월은 그냥 돌아간다.
D) 김덕령이 화월의 행위가 괘씸하여 죽이고자 한다.
E) 화월이 다시 나와 수행 왜졸을 취하게 하고 거사를 논의한다.
F) 화월의 탁월한 지모로 조서비를 살해한다.
G) 화월이 김덕령의 공과 모친의 안전을 위해 자결한다.
H) 김덕령이 대공을 세운다.

위의 내용에서 보여 지는 대로 행위의 주체는 완전히 화월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김덕령은 화월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특히 처음에 김덕령이 화월을 만나러 왔을 때 화월이 그냥 돌아가자 괘씸하게 생각하여 죽이고자 했던 일이나 뒤에 화월이 김덕령의 칼로 죽여 달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 김덕령의 행위는 소극적이며 거기에 배해 화월은 매사에 치밀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129] 여기서 다시 화월이 죽는 장면을 보자.

덕영이 나오려 ᄒᆞ니 화월이 덕영으 소ᄆᆡ을 잡고 엿ᄌᆞ오ᄃᆡ, "중군이 왜중을 베고 나가려 ᄒᆞ옵신이, 소쳡은 엇지ᄒᆞ려 ᄒᆞ신난잇가." 덕영이 가로ᄃᆡ "ᄂᆡ 이제 너을 ᄃᆞ려고 본진의 도라가 즁ᄉᆞ도 ᄒᆞ련이와 네 졍을 포ᄒᆞ리라." ᄒᆞᆫᄃᆡ, 화월리 왈, "중군이 소쳡을 ᄉᆡᆼ각지 안이ᄒᆞ난 ᄯᆞ지로소이ᄃᆞ. 이제 왜중을 쥐기고 쳡을 ᄃᆞ리고 가면 소쳡으 못 칙으로 쥐깃ᄃᆞ ᄒᆞ고 중군의 공도 업실 거시옵고, 위급한 환이 어미계 면져 밋칠 거시온이, 이지 중군을 뵈온니 오날은 이리 된 쥴을 아라ᄉᆞᆸ건니와, 쳡이 ᄉᆞ라

129) 문형준, 앞의 논문, pp.45~46 참조.

무읏ᄒᆞ리요. 조셔비 치든 칼노 쳡의 머리을 베혀 가와 ᄃᆡ공을 이류고 소쳡으 어미계 ᄃᆡ환이 업계 ᄒᆞᆸ소셔.”[130]

“네 말니 그려ᄒᆞᆫ들 ᄎᆞ마 엇지 비히리요.”[131]

“중군이 국ᄉᆞ을 ᄃᆞᆼᄒᆞ여 엇지 ᄌᆞ기 ᄉᆞ졍을 ᄉᆡᆼ각ᄒᆞ고 ᄃᆡ중부의 맘을 졍ᄒᆞ치 못ᄒᆞ고 위급ᄒᆞᆫ 고ᄃᆡ 오ᄅᆡ 머무난잇가.” 하고, 칼을 ᄇᆞᄃᆞ 시ᄉᆞ로 비힌이 빅옥갓탄 목의 젹셜니 소ᄉᆞ나더라.[132]

위 내용에서 시급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김덕령에게 화월은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자결한다.

계월향의 성격변이는 <임진록>을 창작한 민중들의 의식변화를 살피는 중대한 단서가 된다. <숭전대본>에서와 같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계월향의 역할과 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단지 왜장을 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한 명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기능만 하는 부수적 인물로 묘사된 것은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염두를 두지 않음이다. 그러나 <국립도서관본>의 서술자는 계월향의 행위를 부각, 영웅화하여 전란을 거치며 성장된 민중의 사회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앞서 지적한 대로 월선의 죽음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작품 속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최문정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통하여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133] 정조를 목숨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유교적 이념에 얽매여 있던 당시의 여인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정조를 유린당하기 전에, 아니면 당하고 나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아 있어도 그러한 여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적에게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자살한 여인의 경우에만

130)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권영철본>, p.420.
131) 위의 책, <권영철본>, p.422.
132) 위의 책, 같은 면.
133) 최문정, 앞의 책, p.416.

마을 어귀에 정려문을 세워주고, 살아남은 가족의 부역을 면제해 주는 등 상을 베풀었다. 이러한 사회의 규율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천민인 기녀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왜장의 첩이 된 여인을 허구의 소설에서라도 살려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기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만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충 · 효 · 열을 겸비한 지고의 여성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왜장을 살해할 때 협조한 기녀 역시 그녀의 공을 인정해 충절을 밝혀줄 것을 약속한 김응서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을 자청한 것으로 서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영철본>의 화월은 어느 대본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뚜렷이 묘사되어 있고, 그 어느 이본에서 보다 자신감 있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삶에 대하여 단순한 집착에만 연연하던 무식한 천민 여자가 아니라 나라와 부모와 남편을 생각하고 백성된 도리에서 민족적 차원의 부끄러움을 자각한 존재로 변이시켜'[134] 전란을 겪으며 변화되어 가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월은 김덕령을 만나는 순간부터 김덕령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가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김덕령을 도와주었을 경우 자기와 어머니가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 김덕령을 도와 왜장을 베고, 김덕령의 공과 어머니의 안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형상은 매우 비장하다. 화월은 조국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대범한 여장부의 모습으로 실천한 것이다. 서술자는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숭고하게 형상화시켜 놓았다.

이처럼 왜장을 살해하는데 일조한 월선이나 논개는 기녀로서 조선사회에서 하층인이지만, 국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 영웅상을 보여주고 있다.

---

134) 임철호, 「계월향 이야기의 변이와 의미」, 『이가원선생칠질송수기념논문집』, 동간학회, 1987, p.228.

Ⅳ. 대외인식과 민중의식의 성장

1. 왜와 명에 대한 인식

1) 왜에 대한 우월의식

일본과 조선은 오랜 세월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래로부터 일본이라는 명칭보다는 '왜', '개 같은 놈', '머리깎은 취류', '도이(島夷)'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135] 왜에 대한 이 같은 천시감정은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민족적 우월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천시하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 국토는 황폐화되고 왕은 몽진해야 되었기에 왜에 대한 적대 감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했으며, 민족의 자존심은 상처 받았다. 전란의 참상은 임진왜란 실기문학에서 뿐 아니라 <임진록>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슬푸다. 조션ᄉᆞ람의 쥭엄이 뫼갓고 피흘너 강슈되니 그 슈를 칭양치 못할너라. 날이 져물면 쳐쳐 화광이 츙쳔ᄒᆞ고, 낫지면 노략질ᄒᆞᄂᆞᆫ 도적이 ᄇᆡ셩을 무슈히 쥭이고, 우름소ᄅᆡ 구쳔의 진동ᄒᆞ니 그 경상은 차마 보지 못헐너라.[136]

> 십만 대병을 한칼로 순식간에 함몰하고 횡행하여 버히니 주검이 태산 같고 유혈이 강수되었는지라…[137]

> 성에 들어온 적은 사방으로 군사를 놓아서 살육, 약탈, 강간 등가지 포악한 짓은 다 하였다.[138]

---

135) 김장동, 『조선조소설의 작품논고』, 형설출판사, 1986, pp.46~48.
136) 소재영 · 장경남 ,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276.
137) 『흑룡록』, p.20.

왜적들은 이르는 곳마다 살육, 약탈, 강간을 일삼았는가 하면 탈취한 성내의 백성들을 남김없이 죽이곤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악함은 극에 이르러 종묘사직과 궁궐을 불태우고 왕릉까지 파굴하기에 이른다.

평슈가는 경셩의 유진ᄒᆞ야 죵묘ᄉᆞ직과 각 궁궐에 불을 질너서 쇼멸ᄒᆞ니라.[139]

경긔도 광쥬에 셩죵ᄃᆡ왕 션능과 즁죵ᄃᆡ왕 젼능이 게셧드니 왜적의 픠잔병이 발굴ᄒᆞ여 그 시신에 ᄒᆞ락쳐를 알지 못ᄒᆞᆯ지라 변보가 죠졍의 일으ᄆᆡ 상이 친이 망곡ᄒᆞ시고…[140]

이렇듯 처참한 참상으로부터 빚어진 왜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왜적을 씨조차 남기고 싶지 않을 만큼의 적개심으로 표현되기에 이른다.

"ᄀᆡ갓튼 왜젹은 쳔위를 모라고 우리 조션을 침범ᄒᆞ야 인민을 살히ᄒᆞ니 읏지 쳔도가 무심ᄒᆞ시리요. 우리 젼하 날노ᄒᆞ여금 네놈의 씨얼 업시ᄒᆞ라 ᄒᆞ시기로 군ᄉᆞ를 거나려 오날은 ᄌᆞ웅을 결단ᄒᆞᄌᆞ."[141]

왜에 대한 적개심은 김응서와 강홍립의 왜국정벌 이야기와 사명당의 왜왕 항서 이야기를 통해 복수를 펼치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전란 영웅들의 통쾌한 무력의 승리도 민족의 울분을 해소하는 요소가 되겠지만, 임진왜란이 준 상처는 천시하던 왜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전란으로 국가 존재자체가 흔들렸다는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컸다.

이런 이유로 김응서와 강홍립의 왜국정벌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명당을 앞세워 민족의 정신적 충격을 다독이기 위해 <임진록>의 말미에 사명당이라는 도술에 능한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 사명당의 공격의 대상은 왜왕 평수길이

138) <이·한문본>, p.81.
139) <흑룡일기>, p.56.
140) _____, p.77.
141)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286.

다. 뒤에 언급 될 명에 대한 적개심의 표출이 이여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의 침략으로 받은 정신적 상처의 극복은 임진왜란 시 조선에 직접 입성하지 않은 평수길을 <임진록>에 끌어들여 굴복시키고 처단함으로써 이뤄진다.

> ᄉᆞ명당이 고셩ᄃᆡᄆᆡ 왈, "무도ᄒᆞᆫ 왜왕이 쳔의ᄅᆞᆯ 모로고 우리 조션을 경히 너겨 종시 침범코져 ᄒᆞ니 그죄 용셔ᄒᆞ기 어렵고, 또 임진 이후로 조션 인민의 ᄉᆞ망이 부지기쉬라. 우리 됴션이 쥬야로 도쵹ᄒᆞ기ᄅᆞᆯ 왜왕을 버히고 일본을 ᄡᅵ 업시코져 ᄒᆞᄂᆞ니, 왜왕은 ᄲᆞᆯ니 머리ᄅᆞᆯ 올니라."
> ᄒᆞ거ᄂᆞᆯ, 왜왕이 황겁ᄒᆞ여 공쥼을 우러러 ᄋᆡ걸 왈,
> "ᄂᆡ 혼암무지ᄒᆞ여 ᄉᆡᆼ불이신 쥴 모로고 여러 번 희롱ᄒᆞ엿ᄉᆞ오니, 바라건ᄃᆡ 죄ᄅᆞᆯ ᄉᆞᄒᆞᄉᆞ 목슘 살여 쥬시면 항셔를 뼈 올니리이다."[142]

> 왜왕이 ᄃᆡ겁ᄒᆞ야 옥ᄉᆡᄅᆞᆯ 쓸너 목의 글고 용표ᄅᆞ 버셔 목의 ᄆᆡ고 돈슈ᄉᆞ죄[143]왈,
> "실령하신 ᄉᆡᆼ불은 잔명을 보존케 ᄒᆞᆸ소셔." ᄒᆞ며 ᄋᆡ걸ᄒᆞ거날, 그제야 사명당이 비ᄅᆞᆯ 그치게 하고 …(중략)…
> 왜왕이 그ᄃᆡ로 항셔를 써 올이거ᄂᆞᆯ, ᄉᆞ명당 왈, "우리 조션의 한 도의 ᄉᆡᆼ불이 일쳔식 계시니, 다시 반심을 두면 팔쳔 ᄉᆡᆼ불이 일시예 왜국을 공지 만들 거시니 부ᄃᆡ 조심ᄒᆞ라." 왜왕이 ᄇᆡᆨᄇᆡ돈슈ᄒᆞ더라.[144]

위의 내용에서 보여 지는 왜왕의 비굴하고 비참한 항복 장면은 무력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복과 보상심리의 작용으로 임진왜란으로 인한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충격의 극복의지를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민족적 상처 회복을 위한 과정이 하늘로부터의 계시와 신이한 도술로서 서술되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야기 설정은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이 하늘의 도움임을 강조하여 조선과 왜국은 민족성 자체부터 같은

142) 위의 책, <경판본>, p.256.
143) 돈수사죄(頓首謝罪):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히어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빔.
144)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p.376~378.

위치가 될 수 없다는 선민의식을 기저로 한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2) 명에 대한 적대감

왜에 대한 적대감정은 <임진록>에 직접적으로 표출된 반면, 명에 대한 적개심은 이여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임진록>에 나타난 대명의식은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데 있어서 생기는 오만과 반항의 미묘한 감정이다.[145] 명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고, 이여송의 회군을 막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강자와 약자사이에서 오는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관계만이 대명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임진왜란시 구원병으로 조선에 오기는 했지만 명군은 가는 곳마다 주민을 구타하고 재물을 탈취했으며 부녀자들을 집단으로 강간하는 횡포가 비일비재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민중이 갖는 명에 대한 적대의식은 당연한 것이다.

대대로 숭명사상을 지닌 조선은 <임진록>에서 임금과 이여송의 관계가 사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지배계층의 대명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민중의 반명의식은 본고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임진록>에서 조선 산천의 맥을 끊고 다니는 이여송을 산신령이 훈계하여 환국시킨다는 이야기에서 표출된다.

> "나는 너을 아는 지 오린지라. 너를 신체도 업시 하고져 ᄒᆞ나, 일시라도 ᄂᆡ 집의 온손이라 짐작ᄒᆞ니, 너는 공을 일우어 아름다온 일홈을 쳔츄의 뉴젼ᄒᆞ미 장부의 쾌ᄒᆞ미라. 너는 도로혀 찬역지심을 두고 단쳔ᄒᆞᆫ 산믹을 지르니 엇지 분치 아니ᄒᆞ리요." ᄒᆞ고, 손으로 여송을 잡아 문박게 ᄂᆡ치고 호령왈, "드러온 장슈는 급히 산 박게 물너가라." ᄒᆞ거ᄂᆞᆯ, 여송이 할 슈 업셔 앙쳔 탄왈, "이 고젼 오릭 머무지 못할지라."…그 통소 곡조의 ᄒᆞ얏시되,

145) 이재창, 앞의 논문, p.29.

장ᄉᆞ야 장ᄉᆞ야 당장ᄉᆞ야
압녹강을 어셔 밧비 건너셔라
밧부도다 강 건너기 밧부도다
오강영월 젹막ᄒᆞᆫᄃᆡ 우미인을 못 이진들
츈풍도 마역의 양구비을 못 이진가
픽틱의 늘근 용이 션입관즁 ᄒᆞ엿스니
초산의 모진 범이 흥망을 모를소냐
오츄마 간 ᄃᆡ 업고 이팔청츈의 오강을 건너시니
어와 당장ᄉᆞ야 어셔 밧비 월강ᄒᆞ라

…(중략)…"이 산신령이 날을 하여곰 본국으로 도라가고져 ᄒᆞ미라."[146]

<권영철본>에서는 이러한 명에 대한 적개심이 한층 더 깊게 묘사되어 속리산 지맥을 끊으려 시도한 이여송은 결국 산신령에게 피살된다.

여송이 팔도의 명ᄉᆞᆫ 혈을 ᄃᆞ 베고 츙청도 보은 소이ᄉᆞᆫ 드려간니 ᄉᆞᆫ마당 명ᄉᆞᆫ니라. 웅중ᄒᆞ게도 제일니요, ᄉᆞᆫ슈도 졀승ᄒᆞᆫ지라. 여송이 ᄉᆞᆫ즁 용ᄆᆡᆨ을 ᄎᆞᄌᆞ 베든니, 문듯 그 ᄉᆞᆫ실령이 둔갑ᄒᆞ여 웅중ᄒᆞᆫ ᄌᆞ군니 되여 소리을 쳔동갓치 ᄒᆞ니, 쳔지가 요동ᄒᆞᄂᆞᆫ 지라. 여송이 황급ᄒᆞ여 바우 밋ᄐᆡ 은신ᄒᆞᆫ니, ᄉᆞᆫ실령이 나난 ᄃᆞ시 나와 여송으 머리을 베혀 가드라.[147]

명군의 극악무도한 행패로 인한 적개심과 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묵인한 조정에 대한 원망이 결합되어 지배계층의 존명사상과는 반하는 반명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즉, 이여송이 조선 산천의 맥을 끊고 다니는 행위는 이방인 명군이 조선에서 행한 횡포를 비유한 것이고, 이에 응어리진 명에 대한 적개심이 이여송을 꾸짖어 환국시키거나 조선인에 의해 피살되는 이야기로 드러난 것이다.

146)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국립도서관본>, pp.346~348.
147) 위의 책, <권영철본>, p.466.

2. 민중주체로서의 사회의식

1)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

<임진록>에는 집권사대부들을 향한 민중들의 불신감과 원망이 작품 곳곳에 표출되어 있다. 그것은 전란을 포기한 집권층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 오랜 동안 태평을 누리던 민중들은 전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팔도 백상이 난을 보지 못하다가 뜻밖에 일을 당하니 남녀노소 없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며 피난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이러한 울음소리 산천에 낭자하니 가련하고 불쌍한 경상은 차마보지 못할러라[148]

<임진록>에서 민중들은 침략국에 대한 적개심 못지않게 무능한 지배계층에 대하여도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부의 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149] 임진왜란이 일기 직전, 조선에서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전이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조정은 동인이니 서인이니 파당적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선조 23년, 일본 실정과 평수길의 저의를 정탐하고 돌아온 사신들의 보고는 서로 달랐다. 서인 황윤길이 "필유병화(必有兵禍)"라 했음에 동인 김성일은 침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의 의견이 양분되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은 같은 동인으로 김성일과 동행했던 허균도 황윤길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김성일을 수행했던 황진도 김성일의 잘못된 보고를 논하고 이를 처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150] 그러나 이 역시 당쟁의 영향으로 임금이 황윤길의 말을 세력을 잃은 서인이 인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여겨 황

---

148) 『흑룡록』, p.16.
149) 정탁모, 「임진록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p.69.
150) 이상백, 「임란과 대외관계」, 『한국사』, 진단학회, 1972, pp.671~672 참조.

윤길의 보고를 배척하고, 조정에서는 감히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다. 조헌은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터이니 통신사를 파견하지 말고 방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동인을 배척하고 서인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배되었다.

이러한 조정의 당파 싸움을 민중들이 세세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동인, 서인, 임금 모두 결과적으로 전란을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지배계층의 한 무리일 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비롯한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감은 <임진록>을 통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 이거슨 긋씩 죠졍에 당픽가 잇셔 황윤길은 셔편당이 되고 김셩일은 동편당이 되여 저의 쇼견ᄃᆡ로 쥬쟝을 각자 졍ᄒᆞ고 국가의 위ᄐᆡᄒᆞᆫ 닐은 도모ᄒᆞᆯ 줄 모로며 셩일은 다만 죠죵과 인심에 편안키로만 힘을 스니 웃지ᄒᆞᆫ심치 아니리요.[151]

민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배계층의 불필요한 당파싸움으로 인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었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던 전쟁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당파싸움은 그치지 않았다. 더욱 그들은 전란의 선두가 되어 백성을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던져버린 채 전쟁이 일자 도망하기에 급급하였으니 지배계층을 향한 민중들의 불신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당쟁에 휘둘리는 선조로 대변되는 지배계층에 대한 민심의 이탈은 도성을 버리고 몽진 길에 오른 임금을 향한 백성들의 슬픈 곡성에 잘 나타난다.

> 통곡ᄒᆞ여 왈 이제 나라에서 날을 바리고 가시니 나는 누구를 의지ᄒᆞ여 살니오 ᄋᆡ달도다 ᄒᆞ고 인홀불견ᄒᆞ니 이거시 다 국운이 불힝ᄒᆞ야 지죤ᄒᆞ신 군왕으로 ᄐᆡᄉᆞᆯ을 물읍쓰ᄉᆞ 멀니 파쳔ᄒᆞ심을 원통이 여기는 귀곡셩이러라.[152]

---

151) <흑룡일기>, p.46.
152) 위의 책, p.54.

도성을 버린 채 평양으로 몽진했던 선조는 왜적이 평양까지 치고 올라오자 의주로 향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임금이 탄 가마가 이르는 곳마다 왕과 대신들의 앞길을 막고 욕지거리를 퍼붓기에 이른다.

> 듸개 보통문으로 나실ᄉᆡ, 판부ᄉᆞ 노직이 ᄂᆡ젼과 종묘를 뫼셔 듸가를 ᄯᆞ로더니, 셩ᄂᆡ 소요ᄒᆞ며 빅셩이 노직을 ᄭᆞ지져 왈, "여등이 나라흘 도아 이 셩을 직희지 아니ᄒᆞ고 이제 우리를 바리고 님군을 뫼셔 어듸로 가ᄂᆞ뇨." ᄒᆞ며, 어즈러이 치니 노직이 즁히 상ᄒᆞ되 종ᄌᆡ 감히못ᄒᆞ거ᄂᆞᆯ…[153]

또, 지배계층을 향한 비난은 임금을 향한 원망을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최일경은 선조의 꿈에 나온 "왜(倭)"자가 왜란의 징조라고 해몽하였다가 왜적이 제일 먼저 상륙하는 동래로 유배를 당한다. 그는 유배지에서 팔도를 엄습하는 왜적을 보고 왕명도 없이 유배지를 나와 선조를 찾자 선조는 그의 손을 잡고 일희일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반긴다. 이후로 '선조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최일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154] 이러한 상황 설정은 조선의 시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무능한 군주에 대한 비판과 배신감을 최일경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명당의 왜국 출정담 중 동래부사가 승려라 하여 그 인물이 가진 능력과는 별개로 신분이 천하다며 멸시하는 장면은 당시 나라를 위해 일어섰던 의병장과 민중들이 그 능력과는 별개로 신분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공적마저 깎아내리는 집권층의 비열상을 고발하면서 비난하고자한 의도적 설정이다. 그러나 무능한 군주에 대한 비판, 임진왜란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배계층에게 묻는 민중들의 사회의식은 조선왕조의 시대 윤리적 측면의 한계로 인해 표면으로 완전히 표출되어지지 못하고 <임진록> 속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153) 소재영 · 장경남 , 앞의 책, <경판본>, p.68.
154) 정탁모, 앞의 논문, p.71.

2) 민중영웅상의 제시

<임진록>에서 민중들은 지배계층의 끊임없는 당쟁과 안일함으로 인해 예고되어진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지배계층에게 묻고 있다. 이는 최일경과 조헌이 불우지변을 방비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괜한 소리로 인심을 요동케 한다는 죄목으로 찬출 당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 듸간 됴현이 ᄌᆞ로 ᄌᆡ변 잇스믈 보고 상소 왈, "신이 비록 지식이 천단ᄒᆞ오나 그간 천문을 살펴 보온즉, ᄐᆡ빅셩이 동으로 죠ᄎᆞ 북으로 가로지고 여러 가지 ᄌᆡ변이 나오ᄆᆡ, 인심이 흉흉ᄒᆞ와 뉸긔와 기상이 날노 히이ᄒᆞ오니, 조만간의 변ᄂᆞ니 이슬가 ᄒᆞ오니, 복걸 성상은 ᄉᆞᆯ피ᄉᆞ 불우지변을 방비ᄒᆞ쇼셔."…(중략)…"이런 태평성ᄃᆡ의 됴현이 요언을 ᄂᆡ여 인심을 요동케ᄒᆞ오니, 그 죄 비경ᄒᆞ온지라. 복원 젼하ᄂᆞᆫ 됴현을 원찬ᄒᆞ소셔."[155]

> "ᄉᆡᆼ각건ᄃᆡ 왜국이 강승ᄒᆞ여 불구의 ᄃᆡ환이 이럴 듯 ᄒᆞ나이다."…(중략)…"이러ᄒᆞᆫ 승ᄃᆡ에 망명된 말노 죠졍을 요동케ᄒᆞ니 맛당이 관작을 삭탈ᄒᆞ고, ᄇᆡ쇼를 증ᄒᆞ여 동ᄂᆡ로 원찬ᄒᆞ라."[156]

임진왜란의 참상에 대한 책임을 민중들은 지배계층에게 묻고 있으며, 임진왜란에 의한 피해와 민족의 정신적 상처를 어루만져 줄 영웅을 갈망하게 된다. 여기서 영웅이란 민중이 역사 창조의 주체자로서 바라 본 대외인식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대변해 주는 인물로서 신분의 고 · 하를 막론하고 국난의 위기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의 능력을 펼쳐 보인 인물을 말한다. 고로 허구적 인물이지만 성장된 민중의식의 표출로 선조에 대한 비판 수단의 기능을 한 최일경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영웅이라 할 수 있다.

<임진록>에서 실존인물을 민중의 영웅으로 변형시켜 제시함은 민중의 영

155) 소재영 · 장경남, 앞의 책, <경판본>, p.24.
156) 위의 책, <국립도서관본>, p.272.

웅에 대한 갈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이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그 본분을 다한 인물들로 소설 속에서는 한층 더 미화되어 민중의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실에서도 탁월한 지휘관으로 해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이순신은 <임진록>에서 모함 속에서 희생되느니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하게 함으로써 그를 민중 영웅에서 민족적 영웅으로 변모시켜 민중이 바라는 성품과 능력을 겸비한 민족의 영웅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역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모함을 받아 처형당하는 김덕령을 소설 속에서는 그 죽음을 영웅다운 죽음으로 형상화하여 억울한 죽음과 기병하여 뜻을 피지 못한 한을 해원하였다. 이러한 허구적 해원의 방법은 의병 김덕령에 민중 자신을 투영시킨 결과로 그의 영웅적 결말은 민중 자신의 결말이기도 한 것이다.

김응서 · 강홍립의 왜국정벌담은 1619년의 상황을 차용하여 서술된 것으로 두 무장은 <임진록>에서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 두 무장의 대조는 김응서를 민중의 영웅으로 더욱 부각시키고, 변절자 강홍립의 최후를 김응서의 처단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제시함으로써 역사에서 필요로 하는 영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응서 · 강홍립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사명당 왜국항서 이야기는 왜국에 대한 조선의 우월의식을 표명한다. 그 이유는 앞 서 밝혔듯이 사명당이 갖는 신이한 도술 때문으로 그 도술의 밑바탕에는 선민의식이 깔려있다.

> "ᄉᆞ히뇽왕이 조션을 위ᄒᆞ여 일본이 강포ᄒᆞ믈 상제ᄭᅴ 쥬달한즉, 상제 무이 여기ᄉᆞ ᄒᆞ교ᄒᆞ시되, 'ᄉᆞ명당이 급ᄒᆞ미 잇거든 구ᄒᆞ여 셩공ᄒᆞ라'ᄒᆞ시ᄆᆡ, ᄉᆞ히뇽왕이 샹제명으로 그ᄃᆡ를 구ᄒᆞᆯ 거시오. 왜왕 본ᄃᆡ 익셩이라. 샹제ᄭᅴ 득죄ᄒᆞ여 인간의 나려 왓스니 그ᄃᆡ는 괴히 핍박지 말나."[157]

157) 위의 책, <경판본>, p.246.

<임진록>에서 사명당은 이미 생불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명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명당이 생불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사해용왕의 조력에 말미암은 것임을 보았다. 이토록 대단한 신력을 한낱 승려에게 부여하여 전란을 완전히 종결짓게 한 이유는 민중들이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 영웅들은 모두가 국난기의 영웅들로 후세에 전승되면서 민중취향에 따라 다듬어진 민중적 영웅상의 면모를 두루 지니고 있다. <임진록>에 등장하는 민중 영웅들은 국난을 거치며 지배계층을 향한 비판과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만들어진 민중들의 역사창조 의지 표현이며, 상처로 얼룩진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의 결과물인 것이다.

3)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임진록> 초기 본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논개나 계월향의 이야기가 증가되고 부각되고 있음을 앞 서 살펴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상업적 유통이 성행하던 시기에 여성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 여성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158] 논개와 계월향의 활약상이 부각되어간 이유가 그로 인한 것만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문학 참여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그 속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기대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반영되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민중이 사회를 보는 의식은 성장하였고, 그에 맞춰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변화하였다.

그러나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김응서를 도와 왜장을 살해한 인물과 진주성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인물이 사대부 계층의 여인이 아니고 기녀로 설정

158)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림전>, <옥주호연>의 네 작품은 고소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여성영웅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임진록> 이 후에 창작되어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조선후기에 활발히 향유되었던 소설 군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성주인공이 공적인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되었다는 점과, 최후의 선택은 자결이라는 점이다. 결말은 의로운 죽음이지만 사대부 계층 여인에게 왜장과 놀아나는 역할을 부여할 순 없었을 것이고, 자결하는 논개와 계월향의 모습은 당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은 죽음뿐이라는 봉건적 사회윤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그 읍 즁의 논기라 ᄒᆞ는 기싱이 이셔 경국지식이 잇ᄂᆞᆫ지라. 왜쟝이 다리고 촉석누의셔 희롱ᄒᆞ며 친합고져 ᄒᆞ니, 논기 심즁의 헤오ᄃᆡ, ‘ᄂᆡ 비록 쳔기나 엇지 도젹의게 몸을 데레리오.’ ᄒᆞ고, ᄒᆞᆫ 계교를 싱각ᄒᆞ여 적쟝을 속여 왈, “져 강슈의 바회 ᄭᆞᆺ ᄒᆡ셔 두리 ᄃᆡ무ᄒᆞᆫ 후의 장군을 조치리라.” ᄒᆞ니,…[159]

그러나 논개와 계월향은 당시 사회윤리에 따른 신분 설정일 뿐 임진왜란을 겪으며 변화하고 기대하는 여성상을 제시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여성의 제한된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로부터 벗어나 역사를 일궈가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드러낸 것임은 틀림없다.[160] 비록 여성일지라도 국난의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역사를 만드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을 현실에서는 ‘부재’한 불가능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존재’해야 할 모습을 논개와 계월향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

159) 위의 책, <경판본>, p.192.
160)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권10, 2004, p.152.

Ⅳ.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경판본>과 민중적 영웅을 가장 부각시켜 서술된<국립도서관본>, 설화적 허구성이 가장 강한 <권영철본>을 기본 텍스트로 정하여,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화하여 소설화한 역사군담소설 <임진록>의 민중영웅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과 그 역할을 도출해 보고, 아울러 이에 나타난 명과 왜국에 대한 인식과 성장된 민중의식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상층인 이면서 무능한 군주의 간접적 비판의 수단인 최일경, 민중 자신들의 모습을 투사시켜 그 원한을 해소시켜 민중의 영웅으로 완성된 김덕령,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민족의 영웅 이순신, 다음으로 민중의 역사의식의 표출을 보여준 민중의 판결 김응서 · 강홍립, 왜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민중 자신이며 조선의 우월의식을 표명하고자 한 사명당, 변화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논개와 계월향의 모습을 역사적 상관성과 소설이라는 허구의 장치를 빌어 변형시켜 놓은 행동 양상을 각 인물별로 분석하여 그 의도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비록 허구성이 가미되었다고 하지만 사대부 계층이면서 민중의 역사인식을 대변한 최일경과 민중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민중 속으로 받아들여진 이순신, 전쟁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승리를 이끌어낸 조선시대의 주변적 계층의 인물 - 김덕령, 이순신, 김응서, 사명당, 의기 - 들이 민중영웅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신분의 고 · 하를 막론하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성장된 민중의 역사의식 및 사회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야말로 <임진록>의 민중영웅에 부합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Ⅲ장에서 민중영웅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각 민중영웅의 소설 속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 후 Ⅳ장에서는 대외인식의 표출과 민중의식의 성장을 정리하였다. 대외인식의 표출과 민중의식의 성장은 1절 왜

와 명에 대한 인식, 2절 민중주체로서의 사회의식 두 장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1)에서 왜국에 대한 민중의식을 살펴본 바, 7년간의 국토의 전장화와 왜구의 잔인한 살상과 횡포에 대한 민중감정은 왜인의 씨를 없애고자 할 정도의 강한 적개심과 사명당의 왜국 출정담을 통해 조선 민족의 선민의식을 드러내어 민족적 우월감을 표출하였다. 2)에서는 명에 대한 민중의식을 정리하였다. 구원병이면서도 민간인에게 행하는 비일비재한 행패와 조선 조정을 대하는 명의 오만한 태도는 민중들에게 적대심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명을 향한 적개심은 작품 속 이여송의 퇴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절에서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성장된 민중의 사회의식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국난을 통해 성장된 민중의 역사의식이 집권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고, 두 번째, <임진록>에 등장하는 민중영웅을 통해 성장된 민중의식을 보여 줌으로써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민중 자신들임을 강조하며 역사창조의 주체적 의지를 보았다. 세 번째, 논개와 계월향의 영웅적 면모의 부각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전란 후 변화된 사회의식의 구체적인 한 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임진록>에서 최일경, 김덕령, 이순신, 김응서 · 강홍립, 사명당, 논개와 계월향을 앞세워 표출한 무능한 군주와 지배계층의 불합리한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 임진왜란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집권층에게 묻는 방식은 조선왕조의 시대적 윤리적 측면의 한계로 인해 표면으로 완벽히 표출되어지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성장된 민중의식의 표출 방식에서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실제사건을 토대로 쓰여진 역사군담소설로서 <임진록>은 그 구성상의 특이성과 각 인물의 묘사와 변이양상만으로도 앞으로도 소설로서의 연구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국역 연려실기술 권4.
사명당,『사명당집』 행적3장.
선조수정실록 권26·27년.
유성룡,『징비록』 권1·2.
홍양호,『이계집』.
<임진록> <숭전대본>.
<임진록> <흑룡일기>.
<임진록>『흑룡록』.

2. 단행본

김기동,『이조시대소설론』, 선명문화사, 1977.
김장동,『조선조소설의 작품논고』, 형설출판사, 1986.
문과기편,『일본의역사』, 지식산업사, 1976.
박성의,『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소재영,『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소재영 · 장경남, <임진록>,『한국고전문학전집4』, 1993.
신기형,『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이능화,『조선선어화사』, 한남서림, 1927.
이명선,『임진록』, 국제문화관, 1948.
_____,『임진록 해설』, 국제문화사, 1948.
이이화,『한국사 이야기 -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7권, 한길사, 2000.
이태진,『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이홍식,『국제대사전』, 백만사, 1975.
임철호,『임진록 연구』, 정음사, 1989.

_____, 『임진록 이본연구1』, 전주대학교출판부, 1978.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정병욱,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주왕산, 『한국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_____, 『한국문학통사』 권3, 지식산업사, 1994.
최문정, 『임진록 연구』, 박이정, 2001.
최상수, 『한국인명대사전』, 신병문화사, 1967.

3. 논문

권혁래, 「임진록의 서술시각과 인물형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민주, 「임진록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인물양상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김상조, 「의랑주논개의 행장」, 『회소제문고』 권3, 금호출판사, 1982.
김순휴, 「임진록고」, 『동악어문론집』 권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6.
김윤식, 「역사소설의 방법론적 전개」, 『현대문학』 100호, 1968.
김영태, 「임진구국의 승장들」, 『현대불교신서』 17호, 동국대학교 불전위원회, 1979.
김태준, 「임란 후에 배태된 신문예」, 『조서소설사』, 청진서관, 1933.
김형준, 「임진록의 인물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소재영, 「임진록 연구」, 『숭전어문론집』 1집, 1972.
_____, 「한문본논고」, 『단국대학교 국문학논집』 5 · 6집, 1972.
_____, 「임진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0.
박경자, 「임진록에 나타난 작중 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문형준, 「임진록 연구-인물의 문학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
신태수, 「임진록에 나타난 허구적 인물의 성격과 기능」, 『한민족어문학회』,

1987.
_____, 「임진록의 현실주의적 성격」, 『동의어문론집』 제7장, 1994.
_____, 「임진록 작품군의 등장인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이상백, 「임란과 대외관계」, 『한국사』, 진단학회, 1972.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 『여성 문학 연구』 권10, 2004.
이재창, 「임진록에 나타난 민중의식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임철호, 「계월향 이야기의 변이와 의미」, 『이가원선생칠질송수기념논문집』, 동간학회, 1987.
정탁모, 「임진록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조동일,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성산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최삼용, 「임진록의 영웅상에 대한 고찰 -이인영웅으로의 변형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제107호, 1992.